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UCI]I804:24011-200000266615

2018년 2월
교육학석사(한국어교육)학위 연구보고서

문화적 배경을 활용하는 한국어 관용어 교육 방법에 대한 연구

-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한국어교육전공

김 애 심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문화적 배경을 활용하는 한국어 관용어 교육 방법에 대한 연구

-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

A Study on Teaching Methods of Korean Idiom for Chinese Students Using the Cultural Background

2018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한국어교육전공

김 애 심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문화적 배경을 활용하는 한국어 관용어 교육 방법에 대한 연구

-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

지도교수 장 경 현

이 연구보고서를 교육학석사(한국어교육)학위 청구 연구보고서로 제출함.

2017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한국어교육전공

김 애 심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김애심의 교육학 석사학위 연구보고서로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석 주 연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장 경 현 인

2017년 12 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목 차 >

국문 초록

1. 서론 ····· 1

1.1. 연구 목적 ····· 1

1.2. 연구 방법 및 대상 ····· 3

1.3. 선행 연구 ····· 4

2. 한·중 관용어의 특성 및 문화와의 관계 ····· 8

2.1. 한국어 관용어 ····· 9

2.1.1 한국어 관용어 정의 ····· 9

2.1,2 한국어 관용어의 특성 ····· 11

2.2. 중국어 관용어 ····· 15

2.2.1 중국어 관용어의 정의 ····· 15

2.2.2 중국어 관용어의 구조·의미상 특징 ····· 17

2.3. 한국어와 중국어 관용어의 비교 ····· 19

2.3.1 의미와 형태가 같은 관용어(동형동의) ····· 19

2.3.2 의미와 같으면서 형태가 다른 관용어(부분 동형동의) ····· 19

2.3.3 형태가 다르지만 뜻이 같은 관용어(이형동의) ····· 20

2.4. 관용어와 문화의 관계 ····· 21

3. 한국어 학습용 관용어의 선정 ····· 23

3.1. 한국어 교재 분석 ····· 23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1.1 서울대 한국어 ····· 24
3.1.2 서강대 한국어 ····· 25
3.1.3 이화여대 한국어 ····· 26
3.1.4 연세대 한국어 ····· 28
3.2. 한국어 학습용 관용어 목록 ····· 30
3.2.1 생활 문화 ····· 32
3.2.2 민속 문화 ····· 33
3.2.3 자연 문화 ····· 33
3.2.4 신체 언어 문화 ····· 35
3.2.5 기타 언어 문화 ····· 39
4. 관용어를 활용한 한국어 어휘 및 문화 교육 방안 ····· 39
4.1. 중국어권 학습자들의 인식 조사 ····· 39
4.2. 한국어 관용어 교습 방안 ····· 43
4.2.1 모형제시 ····· 44
4.2.2 문화별 교육 방안 ····· 47
4.2.3 수업 지도안 ····· 51
5. 결론 ····· 55
<참고문헌> ····· 58
<ABSTRACT> ····· 62
<부록> 중국 학생들의 한국어 관용어에 대한 인식과 현황조사 설문지 ····· 64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목차>

<표1> 한·중 관용어의 공통점과 차이점 ····· 20
<표2> 서울대 한국어 교재 내에 수록된 관용어 목록 ····· 24
<표3> 서강대 한국어 교재 내에 수록된 관용어 목록 ····· 26
<표4> 이화여대 한국어 교재 내에 수록된 관용어 목록 ····· 27
<표5> 연세대 한국어 교재 내에 수록된 관용어 목록 ····· 28
<표6> 연구자별 외국인을 위한 관용어의 선정 기준 ····· 30
<표7> 생활 문화 관용어 목록 ····· 32
<표8> 민속 문화 관용어 목록 ····· 33
<표9> 자연 문화 관용어 목록 ····· 33
<표10> 신체 언어 문화 관용어 목록 ····· 35
<표11> 기타 언어 문화 관용어 목록 ····· 39
<표12> 중국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관용어 인지및 사용도 ····· 41
<표13> 모란(Moran)(2001)의 문화 수업 모형 단계 ····· 45
<표14> 중국인 학습자 관용어 수업 모형 ····· 45
<표15> 문화분류별 교육방안 예시 –생활문화Ⅰ ····· 48
<표16> 문화분류별 교육방안 예시 –생활문화Ⅱ ····· 50
<표17> 수업 지도안 ····· 51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국문초록

언어를 배우는 목적은 그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다.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체계적인 문법지도와 문법 활용 능력이 중요하다. 그러나 아무리 완벽한 문법적 지식이 있어도 그 사회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언어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 및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기존의 문법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관용어를 통해 어휘와 문화를 같이 교습함으로써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에게 문법적 요소와 한국 사회의 문화를 같이 교습함으로써 한국어를 효과적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관용어를 통한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관용어의 선정 기준을 정했다. 첫째, 기존 한국어 교재에 실려 있는 관용어 중에서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대학 기관에서 사용하는 교재에 나오는 관용어 중 중급 이상의 관용어를 추출하여 관용어가 어떻게 교육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둘째, 중국인 학습자 모국어 특성을 고려하여 모국어에서 유사한 관용어가 있는 것을 선정하였다. 셋째, 대학교재에 나오는 관용어를 선행 연구 자료를 근거로 다섯 가지 문화 요소별로 분류하고 중국의 어휘와 대조하여 제시하였다.

관용어를 활용하여 어휘와 문화를 통합적으로 교수하기 위한 방안으로 모란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어휘와 문화를 통합적으로 교수하기에 적합한 모형이다. 구체적인 교육 방안으로 모란 모형을 기본으로 문화 요소별 교육 모형과 학습지도안을 통한 교육 모형을 제시하여 관용어를 활용해 어휘와 문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교습할 한국어 교육 방안을 강구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한국어 어휘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와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게 되어 보다 흥미로운 학습 동기를 갖게 될 것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 서론

1.1. 연구 목적

관용어는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보다 다채롭고 풍부하게 전달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된다. 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이 오랜 생활 속에서 만들어 낸 것으로 그 민족의 사고나 감정, 가치관이나 의식 구조와 같은 정신문화가 담겨져 있다. 그런데 관용어는 글자 그대로만을 보고는 관용 표현이 갖는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그 나라의 역사, 사회, 문화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부족할 경우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뒤따르게 된다. 관용어는 일상생활에서 사용 빈도가 높기 때문에 관용어를 처음 접하는 외국인 학습자가 이를 학습할 때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학습자 언어 수준이 중급 이상이 되면 양적으로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확장된 언어 능력 수준을 요구받게 되며 한국어 능력 시험 평가 기준[1)]에서 제시하듯이 관용어에 대한 이해 및 사용에 대한 기대를 하기 때문에 한국어 학습자의 관용 표현에 대한 학습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학습자는 관용어를 따로 배우지 않아도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득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들을 위한 관용어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의 경제력 성장과 케이팝, 한국 드라마 등 한류의 영향으로 인해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인구가 세계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한·중 국교 수교 이후, 중국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더불어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중국어권 학습자의 수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게다가 현재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들 중에 중국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1) 한국어능력시험 Ⅱ의 평가기준 4급 - '자주 사용되는 관용적 표현과 대표적인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문화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관용어에 대한 이해 능력 및 사용 능력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016. 4.1 기준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수가 10만 명이 넘었고, 그 중 6만여 명이 중국 학생으로 총 유학생의 5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의 정치적인 상황으로 한국어 학습자 수요가 다소 주춤하고 있기는 하지만, 유학생들의 비율은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처럼 중국인 학습자들이 많은 또 다른 이유를 들자면, 같은 한자 문화권이어서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어 어휘에서 한자어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위키백과에 의하면[2] 한자어는 29만여 개로 57%이고, 우리말의 낱말 사용 비율은 한자어 35%로 한자어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이다. 그래서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가 처음 한국어를 배울 때에는 다른 언어권의 학습자에 비해 훨씬 더 쉽고 빨리 배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주요 문법 지식을 배운 후에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습득할 수 있는 한국어의 어휘량이 다른 외국어 학습자들보다 급격히 증가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런 점은 한국어를 배우는 초급 단계의 중국인 학습자로 하여금 좀 더 쉽게 한국어 학습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지만, 상급 단계의 학습자들에게는 모국어 간섭현상으로 작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나 설문 등에 따르면, 한국어와 중국어의 미묘한 표현방식의 차이, 그리고 표면적 의미만으로는 그 어구의 실질적인 의미파악이 안 되는 특수한 표현들로 인해 한국어 학습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한다. 관용어 또한 여기서 말하는 특수한 표현들 중의 하나인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말 중에는 한자어가 많고, 한국의 관용어 중에서도 그 표현 자체가 중국과 동일한 관용어가 많아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다른 외국인 학습자들보다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한국어 교사들은 중국어권 학습자

2) 국립국어원이 간행한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린 51만여 개의 낱말 중 한자어는 29만여 개로 57%이고, 국립국어연구원이 2002년 발표한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를 보면 우리말의 낱말 사용 비율은 토박이말이 54%, 한자어 35%, 외래어가 2%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들의 이러한 조건을 활용하여 관용어가 반영하고 있는 한국의 가치관이나 문화를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고 접근할 수 있도록, 즉 한국어 학습이 좀 더 깊은 단계로 유도될 수 있는 교육을 시도할 수 있다.

그동안 한국어 교육에 있어 관용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점차 인식하고 관심을 갖게 되었으나 주로 기계적인 암기 위주의 관용어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관용어를 적재적소의 상황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용어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와 함께 문화적 배경을 함께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며 목적 언어에 대한 흥미와 동기 부여와 함께 학습자들이 의사소통 속에서 관용어를 사용하면서 자신감 또한 상승하게 될 것이다.

한국어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능력 배양을 위해, 사회 문화적 능력, 전략적 능력에 관한 교수학습이 필요한데 관용어 교수 학습이 바로 이런 능력 향상 중 하나라 여겨지므로 관용어의 교수 학습은 한국어 의사소통 향상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다루어야 할 분야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관용어를 연구 자료로 사용하여 한국어와 중국어의 대비를 통한 한국어 관용어 어휘를 익히고 한국 문화를 같이 학습하게 하는 방법을 모색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 방법 및 대상

본 논문은 주요 대학에서 출판되어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 교재에 실려 있는 관용어를 추출하고 선행 연구된 자료를 참고로 하여 문화 요소별로 분류하고 한국인이 사용하는 빈도수가 높은 관용어를 기준으로 중국어와 한국어에 있는 관용어를 비교 · 대조하고 그중에서 문화요소가 포함된 관용어를 다시 추출하여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관용어 어휘와 문화를 동시에 교육하는 교육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한·중 관용어 교육에 대한 비교 연구는 중국어권 학습자들로 하여금 한·중 양국의 언어와 사회·문화·사고 등 여러 방면에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동양 문화권에 속하는 한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국과 중국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1장에서는 관용어를 연구 주제로 삼는 목적과 연구방법, 선행연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2장에서는 한·중 관용어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3장에서는 한국어 교재 분석을 토대로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한국어 관용어를 기준으로 한·중 관용어를 유형별로 분류[3]하여 한국어 학습용 관용어 목록을 선정한다. 이 분류는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관용어를 통해 어휘와 문화를 배울 때 동기 유발뿐 아니라 기억하고 활용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에서 관용 표현 선정을 위해 현재 대학기관 통합 교재 중 4개 대학의 교재 분석을 통해 관용어 어휘와 문화가 교재에 어떻게 실려 있는지 현황을 분석하고, 광주시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해 관용어 학습과 활용 실태 및 어휘와 문화를 함께 교육하는 것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 분석한다. 4장에서는 3장을 근거로 학습자들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고 학습자들에게 유의미한 관용어 어휘와 문화를 같이 교수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효과적인 교습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1.3 선행 연구

한국어 관용어에 대한 연구는 노수련(1936)으로 시작하지만 그 때는 주로 자료 수집 차원의 연구가 진행된 단계이다. 한국에서 관용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목받고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1970년대부터였다. 예를 들면 김종택(1971), 김문창(1974), 황희영(1978)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연구들은 관용어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에 지나지 않았다. 한국 관용어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는 1980년대 와서 이루어졌고 그 후 발전을 해 오고 있다. 김인한(1983)을 비롯한 박진수(1985), 심재기

3) 분류 기준은 조항록(2004)의 문화 교육 내용과 황정아(2008)의 관용어 유형 비율을 기반으로 한 관용어 구성과 이재춘(2010), 권현지(2017)의 어휘 분석을 토대로 하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986), 김문창(1990), 이상억(1993), 문금현(1996), 지경숙(1999) 등이 있다. 김인한(1983)은 관용어의 생성원리, 생성과정, 관용어의 유형에 대해 논의하고 김종택의 검진법인 상대음미법과 부정음미법의 결합을 지적하면서 관용어의 검진방법으로 확장법, 도치법, 복수화, 대치, 수동태 전환, 대명사화 등을 선정했다.

심재기(1986)는 화용론적 시각의 연구로 관용어를 이해하려면 각각의 화맥적 요소를 고려해야 함을 말했다. 또한 관용어를 어휘적 차원의 것과 문장 차원의 것으로 양분하여 제시했다.

김문창(1990)은 관용어(숙어)의 개념만을 중점적으로 재론했는데 서구학계, 일본학계, 국내학계의 제설을 제시, 검토하고 관용어를 숙어라는 용어로 확정하고 숙어의 대개념을 관용어라 했다.

문금현(1996)은 관용어 교육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어 교제에 제시된 관용어의 수와 항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재에 나오는 관용어의 선정 기준과 목록, 제시 방법들이 체계적이지 않다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관용어의 목록을 선정하고 학습 단계별로 제시하였다.

지경숙(1999)는 관용어는 표면상 구나 문장으로 표현되더라도 문맥 내에서 하나의 의미 단위로 기능하므로 '관용어'로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며 관용어의 의미 특성을 생성의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중국의 경우에는 呂叔湘과 朱德熙가 1952년에 처음으로 '습관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고, 그 후로 관심이 점점 높아지면서 '관용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관용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1980년부터 시작되었다.

王勤(1982)는 관용어라는 명칭의 근거를 제시하고, 관용어와 가장 비슷한 형태인 성어와의 비교를 통해, 관용어의 특징을 구조의 영활성, 의미의 응고성, 언어풍격의 색채로 구별하여 연구하였다.

呂翼平, 戴昭銘, 張家驊(1987)에서는 관용어의 구분과 해석 문제를 연구하였는데, 그들은 관용어를 타 범주와 쉽게 구분하기 위해 관용어와 단어, 문장, 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유사조, 성어, 고어 방언과의 비교를 통해 관용어의 특징을 규명하였고, 관용어 해석에 관해서는 정확함과 간명의 원칙, 중심어와 수식어의 구분 등 4가지 수사기법을 통해 설명하였다.

郭惠珉 (2002)은 '관용어'의 개념, 구조, 기능과 활용에 대해 연구를 하였고, 김태경(2005)은 오관에 관련된 관용어를 연구하였다.

李傳燕(2005)는 중급, 고급 수준의 한국 학생을 대상으로 중국어 관용어 이해에 대한 연구를 하였는데, 관용어의 의미투명도가 관용어의 이해에 끼치는 영향과 한국 학생이 중국어 관용어를 이해할 때 사용하는 이해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실험 연구를 통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용어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중국과 한국 양국 모두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관용어 교육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주요 연구로는 유덕자(1997), 문금현(1998), 후문옥(2003), 이동규(2005), 송현아(2008), 유경화(2011) 등의 연구를 제시할 수 있다.

유덕자(1997)은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이라는 주제로 관용어를 의미, 형태, 통사, 화용의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관용어를 한국의 문화와 관련된 관용어 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그 당시에 교재를 중심으로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관용어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문금현(1998)은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관용 표현의 항목을 추출하여 한국인이 많이 사용하는 관용어를 기반으로 외국인들의 관용 표현에 대한 인지도 및 의미의 투명성에 따라 난이도를 설정하였다. 또한 이 목록을 사용하여 단계별로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후문옥(2003)은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어휘 교육 연구로, 한국어 관용어를 비롯한 한국어 어휘에 대해 총체적으로 정리하고 각각의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동규(2005)는 속담과 관용어를 묶어 속담관용어로 의미를 설정하고 이를 문화 어휘 교육이라 지칭하였다. 속담관용어의 설정 기준을 마련하여 속담관용어 기준을 설정, 목록화하고 수업 목표와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송현아(2008)은 한국어 관용어와 몽골어 관용어를 비교·대조하였다. 한국어 관용어와 몽골어 관용어의 각각의 특성을 알아본 뒤, 몽골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관용어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유경화(2011)는 TOPIK과 한국어 교재에서 관용 표현의 실태를 비교 분석하고 TOPIK과 한국어 교재 내에서 관용어를 선정하고 유의미한 목록화를 진행하였다.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이전의 교육학적인 측면만 바라보았던 관용어 교육이 문화적인 측면에서 문화와 언어 교육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많아졌다. 관용어 교육 또한 언어 문화의 한 요소로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황정아(2008)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관용어 표현 양상과 내포 문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과 대만의 언어문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어 관용어와 중국어 관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문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연구하였다. 관용어의 표현 양상 비교는 어법 구조의 비교와 소재 분류의 비교를 통해 서로 차이가 생긴 원인을 수량, 인물, 신체, 의식주, 동식물, 자연·물질, 여가 활동, 시간·공간, 생활용품, 행위·동작으로 분석하였는데 여기서 더 도출하여 관용어를 통해 문화적 유사성과 차별성을 고찰하였다. 단지 한 언어로 문화를 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조를 통해 문화의 대조성을 연구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재춘(2010)은 관용어를 관용구라 칭하고 관용구가 한 문화 사회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함축된 언어로 표현 할 수 있는 좋은 표현이라 하였다. 또한 관용구 내에 내제되어있는 한국의 문화적 요소를 '농경 문화, 결혼 문화, 체면 문화, 혈연 문화, 서열 문화, 놀이 문화, 민속 문화' 7가지로 구분하고 이를 활용하여 문화 교육의 항목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 선정된 문화 관용구 항목을 한국어 교재와 교수 방안에 접목시켜 제시하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다.

강원구(2013)는 한국어 중·고급 이상의 학습자들이 한국 문화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한국 문화 이해도를 측정하였고, 이 이해도 관용 표현을 인지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 과제로 삼았다. 그 결과 학습자들이 한국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을수록 한국 문화가 내재 되어있는 관용 표현의 인지도가 높은 편에 속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 결과에 따라 언어와 문화의 통합교육은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는데 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과 중국의 관용어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부터 시작하여 최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 한국에서는 중국 유학생들의 증가로 인하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한국어 교육의 일환으로 관용어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지함에 따라서 한중 관용어 비교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관용어를 활용한 어휘와 문화를 연계하여 교육하기 위한 연구는 아주 미미하다. 2000대 후반에 들어와 관용어와 문화와의 연구가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만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형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과 중국의 관용어의 특징들을 살펴보고, 거기에 문화적 요소별로 구분하여 두 관용어를 비교·대조하고 언어 교육과 문화 교육을 통합하여 한국어 관용어 교육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 한·중 관용어의 특성 및 문화와의 관계

외국인이 모국어 화자들이 관용어를 사용하듯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이는 나라마다 고유한 문화의 차이로 인한 것인데 관용어는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다 포함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관용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어를 학습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관용어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단어와 단어가 결합하여 새로운 제 3의 의미를 탄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학자들마다 관용어의 개념과 용어는 “관용구, 이디엄, 숙어, 익힘말, 관용어[4] 등 각기 다르게 칭하고 있다. 최근의 추세는 ‘관용어’와 ‘관용 표현’을 사용하는 편이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었고 지금까지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도 ‘관용어’이다.

2.1 한국어 관용어

2.1.1. 한국어 관용어 정의

(1) 사전적 정의

가. 『국어국문학자료사전』

한 언어의 일반적인 표현에 비해 특별히 다른 구조나 의미를 지니는 단어나 구절을 말하는데 넓은 의미로는 어느 한 언어가 다른 언어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지니는 특징적인 모든 체계를 뜻한다. 관용구 · 관용어법 · 숙어 · 성어(成語) · 익은말 · 익힘말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나. 『국어대사전』

①일반적으로 습관이 되어 사용되고 있는 말·

②문법상 논리적으로는 맞지 아니하나 다년간 관용이 되어 널리 쓰이는 말, 보통 둘 이상의 단어가 으레 붙어서 쓰이는 것 또는 결합되어서 전체가 독특

4) 문금현(1999)은 관용어에 대한 용어의 사용은 통일되지 못하고 혼란이 계속 되어 왔다고 했다.
· 관용구 - 노수현(1936), 이훈종(1961), 김민수(1964)등
· 관용어 - 김종택(1971), 박진수(1985) 등
· 숙어 - 김문창(1974,1980), 심재기(1986), 한정길(1986), 안경화(1987) 등
· 익힘말 - 황희영(1978)
· 관용어구 - 김규선(1990)
· 관용어 - 강위규(1990)
· 익은말 - 김혜숙(1993)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한 뜻을 나타내는 표현 등을 이른다.

다. 『표준국어대사전』

①습관적으로 쓰는 말

②언어=관용구.

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①한 언어의 일반적인 표현법에 비하여 특별히 다른 구조나 의미를 지니는 단어나 구절.

②넓은 의미로는 어느 한 언어가 다른 언어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지니는 특징적인 모든 체계를 뜻한다. 관용구·관용어법·숙어·성어(成語)·익은말·익힘말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2) 학자별 정의

황희영(1978)은 구성요소만으로는 그 뜻이 추출될 수 없는 표현이라 하였다..

박영순(1985)은 두 개 이상의 단어로 결합된 언어 형태로서 비논리적이고, 탈문법적이지만 언중들 사이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특수한 말들'이라 규정하였다..

심재기(1986)는 통사적 및 화용론적 기능을 수행하는 결합어휘라 정의하였다.

안경화(1987)는 언어의 전반적인 규칙성에 비추어 볼 때, 비정상적이지만 관습상 통용되는 언어 형식을 관용 표현으로 규정하였다.

강위규(1990)는 '관용어'를 말하는 사람이 특정 상황에서 경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사용해 온 일반적인 표현과는 다른 형식을 빌어서 표현한 형태가 그 언어 사회에서 대중성을 얻어 익은 형태로 통용되는 것으로 보았다.

문금현(1996)은 관용 표현을 단어, 구, 절, 문장 형식의 모든 표현을 대상으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로 삼는다고 하면서, 광의의 표현과 협의의 관용 표현으로 분류하였다. 광의의 관용 표현은 '습관적으로 굳어져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며 다의어를 구성요소로 가진 상용구절, 격언, 금기담, 은유표현, 직유표현, 간접화행 표현, 인사말, 완곡어법에 의해 생긴 상투적인 표현들이 있으나. 축자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순수 관용 표현에서는 제외된다고 하였다.

유덕자(1997)는 때로는 비문법적, 탈문법적이지만 대중성과 통용성을 지니고 관용적으로 쓰이는 그 나라 언어의 독특한 표현으로서, 통사적으로는 두 개 이상의 의미소가 결합한 구나 절로 이루어지고, 의미론적으로는 기본 어휘나 문법으로서는 파악할 수 없는 특수의미로 통용되는 제3의 단일한 의미를 가지고 은유적으로 화석화된 연쇄어군이라 하였다.

김향숙(2003)은 둘 이상의 어절이 결합되어서 그 단어가 지닌 각각의 1차적인 의미를 잃고 제3의 의미를 획득하는 것으로 의미와 형태가 화석화 된 구 이상의 구조를 가진다. 구절형이지만 의미는 단일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하나의 단어로 대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위의 사전적 의미와 학자들의 정의에 따르면 한국어 관용어는 한국 사회의 역사, 문화, 사회적 배경이 반영되어 습관적으로 굳어져 널리 사용되는 특수한 말로서 문법적, 논리적인 뜻과는 다른 뜻을 가진 표현, 구조적으로 분리 불가능한 고정적 표현 형식을 지닌다. 의미상으로도 각 구성요소의 합이 아닌, 문법적 논리적인 의미와 다른 제3의 새로운 의미를 나타낸다.

2.1.2 한국어 관용어의 특성

한국어 관용어는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역사와 문화, 사회적 배경 등이 담겨 있는 특수한 말로 굳어져 널리 쓰이는 것으로 의미적으로 두 개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제3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또한 구조적으로 분리 불가능한 고정적 표현 형식을 지니고 있다. 다음에서 구체적으로 통사적 특징과 의미적 특징으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로 나눠 살펴보겠다[5].

(1) 통사적 특징

가. 관용어는 구· 절의 형태를 지닌다

나. 관용어는 대치의 제약을 받는다.

관용어는 일정 어휘들이 결합되어 굳어진 형식으로 나타나며 다른 낱말로 대치시키면 그 관용적 의미도 완전히 잃게 된다.

(1) ㄱ. 바가지를 씌우다.

ㄴ. 모자를 씌우다.

다. 관용어는 관형화 제약을 받는다.

관용어는 구성요소인 서술어를 관형화하면 보통 관용적 의미를 잃게 된다.

(2) ㄱ. 그가 나에게 바가지를 씌웠다.

ㄴ. 그가 나에게 씌운 바가지가 크다.

(2ㄱ)은 나에게 터무니없는 값을 지불하게 했다는 의미이지만, (2ㄴ)은 관용적인 뜻이 없어지고 일반적인 표현이 된다.

라. 관용어는 수식어 제약을 받게 된다.

관용어의 구성요소에 수식어가 삽입되면 보통 그 관용적 의미를 잃게 되고 글자의 의미대로 해석되는 문장이 된다.

(3) ㄱ. 영희가 미역국을 먹었다.

---

5) 김진해(2003), '관용어의 직설의미와 관용의미의 관계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관용어는 둘 이상의 단순 어휘 항목으로 이루어진 통사적 결합체가 특정 언어 사회에서 그 구성 요소가 가진 의미의 합이 아닌 제3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를 말하며, 관용어의 이러한 특징은 통사적 구조와 의미의 특이성에서 찾을 수 있다고 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ㄴ. 영희가 맛있는 미역국을 먹었다.

마. 관용어는 피동· 사동의 제약을 받는다.

(4) ㄱ. 영희가 미역국을 먹었다.
ㄴ. 어머니가 영희에게 미역국을 먹였다, 먹게 하였다.

(4ㄱ)의 '미역국을 먹다'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쓰일 수 있지만 (4ㄴ)처럼 피동이나 사동 형식으로 나타나면 관용적인 표현이 되지 못한다.

(2) 의미적 특징

관용구는 크게 다음의 네 가지의 의미적 특성을 갖는다.

가. 의미의 비합성성

관용구의 의미가 구성 요소들이 가지는 의미들의 합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의미가 비합성적이다.

'미역국을 먹다'는 시험에서 떨어졌다는 의미의 관용 표현으로 '미역국'과 '먹다'를 조합한 뜻과는 전혀 다름을 알 수 있다.

나. 의미의 중의성

상당수의 관용구들이 축자적인 의미와 관용적 의미 두 가지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 결과적으로 중의성을 갖게 된다.

(5) 물을 먹다 : ① 물을 마시다. ② 손해를 보거나 실패를 하다. ③어떤 나라나 사회의 영향을 받다.

(5물을 먹다)는 축자적 의미인 ①과 관용적 의미인 ②, ③으로 모두 해석될 수 있다.

다. 의미의 불투명성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축자적 의미와 관용적 의미 사이에 유연성을 분명히 알 수 없어 축자적 의미를 통해서는 관용적 의미를 알기 어려운 불투명성이 있다.

문금현(1996:50~51)[6]은 관용어를 의미의 투명성을 기준으로 하여 세 단계로 나누었다. 의미 연상이나 예상이 쉬울수록 투명성이 높고 어려울수록 낮으며, 수사기법에 있어 신체 모습이나 행동, 감정을 비유적으로 묘사하는 경우는 대체로 투명성이 높고, 사건이나 상황을 비유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투명성이 낮다. 구성요소 중 잘 쓰이지 않는 고어나 폐어가 있으면 투명성이 낮고 일상적인 어휘로 구성된 경우는 투명성이 더 높은데 투명성이 높을수록 사용 빈도가 높고, 투명성이 낮을수록 사용 빈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라. 의미의 특별한 표현 효과

관용어는 보통 화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더 강조하거나 상대방에게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한다.

(6) ㄱ. 어제 밤에 공포 영화를 보고 <u>너무 무서웠어요.</u>
ㄴ. 어제 밤에 공포 영화를 보고 <u>간이 콩알만 해졌어요.</u>

예문 (6ㄱ)보다 (6ㄴ)이 훨씬 무섭게 느껴진다. 관용어로 나타내는 감정적

6) 투명성의 정도에 따른 관용어 분류

정도성	의미	용례
불투명	생성 수단이 잊혀져서 잘 알지 못하는 역사적 사건에서 유래되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배경을 알기 어렵고, 구성 요소 중 다의화를 거친 것이 없어 의미의 투명성을 가지기 어려운 유형	변죽을 울리다, 시미치를 떼다, 오지랖이 넓다. 산통을 깨다
반불투명	축자 의미와 관용 의미와의 유연성이 약간 느껴지고 축자 의미에 의해서 관용 의미를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는 것, 생성 배경의 짐작이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	미역국을 먹다, 김이 새다, 바가지를 긁다
투명	축자 의미에 의해서 관용 의미를 비교적 쉽게 예측할 수 있으며, 연상 작용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생성 배경도 짐작할 수 있는 표현	국수를 먹다, 김이 빠지다, 고개를 들다, 발목이 잡히다, 기가 막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의미를 표현적 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관용어는 직설표현이 갖지 못하는 감정 가치를 동반한다.

2.2 중국어 관용어

2.2.1 중국어 관용어의 정의

(1) 중국어 관용어의 사전적 의미[7)]

가. 『언어학백과사전』(1993)

구어 중에서 습관적으로 사용되는 고정구의 일종이며, 일반적으로 비유의미나 파생의미를 나타낸다. 관용어는 주로 3자로 이루어져 있으나 4자가 넘는 것도 있다. 형식 구조상 관용어는 분해 될 수 있다. …비교적 강한 구어적 특성을 사용상의 특징으로 한다.[8)]

나. 『현대한어』 (1993)

관용어란 관습적인 합의를 표현하는 고정구를 가리키며, 주로 3글자로 이루어진 어휘 조합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다. 『신관용어사전』 (1996)

관용어는 일상의 대화 가운데서 폭넓게 사용되는 습관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로 규정 격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비교적 융통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그것은 비유 등의 방법을 통해 수사적 의미를 확보함으로써 생동적인 현상성과 특유의 표현력을 가진다. 관용어의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다. 구조 형식은 동빈구조의 삼자격이 주가 되고……관용어는 구조상 일정의 고정격식이 있으나 비교적 융통적이다……대다수의 관용어는 담화체의 색채를 가지고 있어 일상 대화 중에 많이 사용된다.[9)]

---

7) 중국 관용어의 사전적 의미, 학자별 중국어 관용어의 정의는 왕춘위(2013) '관용어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방안연구' 청주대학교대학원과 조뢰(2011) 등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8) 阮智富 (1994) ,『語言學百科詞典』上海辭書出版社.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라. 『관용어』(1997)

관용어는 정형구의 일종이다. 관용어는 그 의미나 구조나 모두 고정적이며 통일적이다. …… 둘째, 관용어의 총제성은 관용어의 추상화에 있으며, 이러한 추상적인 의미 생성의 주요한 경로는 비유이다.

(2) 학자별 정의

馬國凡·高曉東(1982)은 관용어는 일종의 '굳어진 구'로서 완전하고 통일된 의미와 구조를 지닌 것으로 보았다. 관용어의 구성성분은 전체 구조로부터 분리되면 관용어에서 의미하던 바를 상실한다고 정의하였다.

徐宗才·應俊玲『慣用語例釋』(1985)은 관용어는 수량이 성어보다 많고 역사도 유구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살아있는 듯 생생한 언어 속에서 끊임없이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어 매일 접할 수 있는 것이 부지기수다. 관용어는 구조가 일정하고 그 구성 성분 또한 비교적 일정하지만, 또 어느 정도의 융통성도 허용한다. 관용어는 일반적인 개념을 표시하는 것으로, 글자 표면상의 의미가 곧 진정한 의미라고 하였다.

陳光磊(1991)은 관용어는 숙어의 일종으로 그 성격, 특징 등에 관해서 완전히 통일된 견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구조상으로 관용어는 정형성(定型性)을 지니고 있다. 정형성이란 관용어의 구성성분이나 그 구성방식이 상대적으로 고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의미상으로 관용어는 변이성(變異性)을 지닌다. 의미의 변이성이란 관용어의 진체적인 의미는 관용어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들의 의미의 합으로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관용어가 실제로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심층의미)는 겉으로 드러난 의미(표층의미)와 서로 보합되지 않는 것이다. 기능상에서 관용어는 단어와 등가물을 이룬다. 스타일(風格)에 있어서 관용어는 상당히 구어적이며 해학적인 감정적 색깔을 담고 있다고 하였다..

---

9) 『新慣用語詞典』(王德春 , 1996 , 上海辭书出版社) '惯用语是廣泛流傳于日常談话中既有的固定格式， 又有比较靈活结構的習用詞组 , 它通過比喻等方法獲得修辭轉義 , 具有省動的形象性个特有的变现力。惯用语有下列主要特點： 在詞组形式上以動賓结構的三字格爲主體 , ……惯用语既有一定的固定格式， 使用時， 结構上又比较靈活……絶大部分惯用语語句有談话体色彩 , 多用于日常交際之中。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王德春 『新慣用語辭典』(1996)은 관용어는 일상의 대화 가운데서 폭넓게 그리고 습관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구로써 고정격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비교적 유동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였다.

중국어 관용어는 개념 규정이 확립되지 않아 관용어의 개념에 대하여 여러 학자들의 주장은 조금씩 다르지만, '중국어 관용어는 숙어의 일종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말을 우회적이고 비유적으로 말하는 관습적인 말이며, 구어성과 유머성을 지닌다.'고 요약할 수 있다.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널리 쓰이는 말로, 그 의미와 구성요소가 단순히 더해져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제3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중국의 관용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2.2.2. 중국어 관용어의 구조 · 의미상 특징

중국어 관용어의 구조상 특징은 음절수나 문법 구조, 그리고 문장의 구성성분으로서 고정성을 지니면서 때에 따라서는 변이가 가능한 융통성 등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음절수를 살펴보면 중국어 관용어는 일반적으로 3음절로 되어 있다[10]. 3음절의 짧은 구조 안에서도 명확하고 풍부한 표현이 가능한 것이다.

(1) 통사적 특징

가. 중국어는 대치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언중들이 말할 때 문맥과 상황에 맞게 관용어의 일부 글자를 바꾸어 사용할 수 있다.

黑心脏 (검은 심장) – 검은 속셈이 있는 놈, 엉큼한 놈, 黑心肝 으로 대치가 가능하다.

10) 대부분이 3음절 구조를 지닌다는 것이지 중국어 관용어 모두가 3음절 구조는 아니다. 3음절로 되어 있는 관용어가 66% 정도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나. 관용어 분리 및 삽입이 가능하다

관용어가 문장 가운데서 활용될 때 그 가운데 어떤 글자를 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出风头 (바람이 일어나다) –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 주제 넘게 나서서 자기를 내 세우다. 出一下风头 '一下' 삽입 가능하다.

다. 어순의 도치가 가능하다

관용어가 문장 가운데서 사용될 때 관용어 구성 글자 순서가 바뀌어도 의미가 바뀌지 않는다.

穿小鞋 (작은 신발을 신다) – 따끔한 맛을 보여주다, 냉대하다. 小鞋穿으로 도치가 가능하다.

(2) 의미상의 특성

중국어는 이러한 특성들 외에도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중국어 관용어는 매우 강한 어감을 가지고 있다. 중국어의 관용어는 긍정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도 있고 부정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도 있으며 긍정, 부정의 어떠한 감정적 색채도 지니지 않는 중성적 표현도 있다. 또한 전체적으로 중국어 관용어는 긍정적 의미보다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가. 긍정적 의미

의미상 긍정하거나 칭찬하는 의미를 띤 관용어로서, 내포된 의미가 긍정적 어감을 띤 대상에 사용하는 것이다.

走好运 –경사스러운 길을 걷는다.

나. 부정적 의미

의미상으로 부정하거나 감정 색채를 부가적으로 지니고 있는 관용어. 그 수가 긍정적 표현과 중립적 표현보다 월등히 많다.

친숙한 상대에게 익살스럽고 유머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다.

这次考试只有我不及格, 真是触霉头 – 이번 시험에 오직 나만 유급해서 정말 기분이 잡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때 '触霉头'는 '곰팡이가 생기다', '불운을 만나다'라는 의미이다.

다. 중성적 의미

긍정도 부정도 아닌 중성적 의미의 관용어

他把心里话一股脑儿地都说了出来 – 그는 마음속에 있는 말을 몽땅 털어놓았다.

'一股脑儿'은 '머리, 다리 모두'의 의미이다.

2.3 한국어와 중국어 관용어의 비교[11)]

2.3.1 의미와 형태가 같은 관용어(동형동의)

한중 관용어의 의미 간에 유사성이 확인되는 것을 동형동의로 분류한다. 즉, 형태가 같으면서 의미도 같은 관용어가 동형동의 표현에 속한다.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기 때문에 서로 많은 영향을 받아 왔다. 그래서 문화적 의미를 많이 담고 있는 관용어에도 비슷한 부분이 존재한다. 이러한 유사성으로 인해 중국인 학습자들은 동형동의 관용어를 가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눈이 높다'는 한국어로 '정도 이상의 좋은 것만 찾는 버릇이 있다'의 의미인데, 중국어에도 '眼高'라는 동일한 관용어가 있다

2.3.2 의미가 같으면서 형태가 다른 관용어(부분 동형동의)

부분 동형동의는 의미가 같지만 양국 간 언어 및 문화 차이 때문에 형태의 일부분이 다른 경우이다. 이 부분 역시 학습자가 습득하기 편한 면이 있다. 예를 들면, '마음이 무겁다'는 중국어로 직역하면 '心重'이다. 이에 대응되는 중국어 관용어는 '心情沉重'이라고 하고, 한국어로 직역하면 '기분이 무겁다'이다.

11) 왕춘위(2013), pp26-30과 이미숙(2017), pp68-69을 참고하여 작성함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3.3 형태가 다르지만 뜻이 같은 관용어(이형동의)

이형동의 표현은 형태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의미 유추가 매우 어렵다. 이것이 바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쉽게 오류를 범하는 부분으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국수를 먹다'는 한국에서 '결혼하다'라는 의미인데 중국에서는 '결혼하다'는 뜻을 나타나는 관용어는 '사탕을 먹다'나 '술을 먹다'이다. 이는 양국 간의 문화적 차이가 한·중 관용어의 차이에 반영된 것이다.

외국어 학습자들이 먼저 자신의 모국어와 뜻이 같고 비슷한 문화에서 쓰이는 관용어를 먼저 학습한다면 관용어 학습에 대한 부담을 덜 느낄 것이다. 한중 양국의 문화 차이 때문에 같은 표현의 관용어라도 상징적 의미가 다른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는 한국의 고유한 문화로 인해 중국의 관용어와는 대응될 수 없는 한국어 관용어들도 있다. 이러한 관용 표현들의 체계적인 학습은 한중 문화 차이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다음은 한국어와 중국어 관용어의 차이점을 표로 제시한다

<표1> 한·중 관용어의 공통점과 차이점[12)]

공통점	차이점
①생성면에서 일반대중들이 숙지하고 관습적으로 널리 쓰이는 말로서 통시적이고 공시적이며 민족적인 특성을 가진다. ②형태면에서는 조합 형태가 짧고 형식은 제한되지 않아 한 단어 또는 구절이나 문장으로 구성되는 것이 모두 가능하다. ③통사구조면에서 조합 형태는 상당한 제약성이 있고 때로는 어떤 구성 요소를 대	①생성면에서 한국어 관용어는 첨가어의 특성으로 문법에 능동, 사동, 피동의 형태가 많이 있다. 하지만 중국어 관용어는 그렇게 구분되지 않는다. ②형태면에서 한국어 관용어 중 일부는 중국어의 사자 성어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어 관용어는 사자성어를 포함하지 않는다.

12) 이미숙(2007:70-73)를 정리함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치하거나 성분을 첨가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하면 관용적 의미가 상실된다. ④ 의미면에서는 축자적 의미가 아닌 제3의 관용적 의미가 있어야 하며, 대부분은 이중의미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⑤사용면에서 일반 문장에 들어가서 문장의 구성 성분의 하나가 된다. 단독적 서술이나 인용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⑥ 기능적인 면에서는 문장을 생동감 있게 만들고 의미를 뚜렷이 나타내는 혹은 강조하는 기능이 있다. 완곡적, 우회적, 비유적인 방법으로 서술하여 추상적인 사물을 구체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⑦통속적이고 유머적인 특성이 있으며, 선명한 수사적 효과가 있다.	③통사 구조면에서 한국어는 주어를 생략하여 목적어와 서술어로 결합된 관용어도 관용어로 볼 수 있지만 중국어에서는 성구,어절형의 관용구만 관용어로 보아야 한다. 교착어인 한국어와 고립어인 중국어는 두 언어의 통사 구조가 다르다. ④의미면에서 한국어와 중국어의 관용어는 같은 표현 방식이라고 해도 때로는 그 의미가 다르게 사용된다.

2.4 관용어와 문화의 관계

인간은 공동 생활을 언어를 통해 할 수 있고, 하나의 공동체 사회에서 인간이 만들어 낸 모든 것을 문화라고 본다면 언어에는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모든 언어가 포함된다. 즉, 관용어, 속담, 격언, 의식주, 풍습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관용어를 잘 이해하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는 수단이 된다. 관용어를 통해 해당 사회 문화를 경험하거나 사회·문화적 관습의 내용까지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언어와 문화는 어떠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가? 언어는 가치관, 믿음 및 규범과 함께 문화의 한 구성 요소이다. 언어는 문화의 소산으로 사회화 과정을 통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수되며 그 자체가 문화를 형성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다시 말해서 문화는 언어에 의해 형성된다.[13)]

문화에 대한 가장 큰 반응은 언어 중 특히 어휘에서 나타난다. 즉 어휘는 문화적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언어는 문화의 일부분이고 문화는 언어의 일부분으로서, 분리 시켜 생각할 수 없다.

어떤 언어를 이해하려면 문법적인 문장들을 이해하고 만들어 내기 위한 규칙들에 대한 지식은 물론, 언어 사용의 사회·문화적인 규칙들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다. 언어는 다른 문화적 특징들을 전달하는 매개로 언어 학습에 있어서 이러한 것이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외국어를 배우면서 직접적으로 외국 문화를 접할 기회가 적은 학습자에게 언어를 통해서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한 언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언어에 대한 단순한 지식보다 언어의 사용, 즉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식이 더 중요하므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문화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관용어는 해당 국가의 문화 특색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의 하나로, 한 나라, 한 민족의 정신세계와 가치판단, 생활 및 문화로 볼 수 있으므로 외국어를 배우려고 할 경우, 이런 관습적 표현을 필수적으로 습득해야만 한다.

예를 들자면 '산통을 깨다' 라는 관용어는 '잘 되던 일을 이루지 못하게 뒤튼다' 라는 의미가 있다. '산통'은 우리 민족이 점을 칠때 사용했던 도구였는데 그 산통을 깨버리면 점을 볼 수 없게 되어 준비한 것이 헛수고가 되어 버리게 된다. 오늘날에는 어떤 일을 열심히 준비했지만 방해거리가 생겨 그 일을 이루지 못했을 때 '산통을 깨다'를 사용한다. .

(7) ㄱ. 장학금을 타려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너 때문에 산통이 깨졌어!
ㄴ. 아기를 재우려고 했는데 자동차 경적 소리 때문에 산통이 깨졌다.

13) 이미숙(2007:32-33)를 일부 인용 정리함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러나 한국어 학습자들이 이런 민속 문화 유래를 모른다면 한국인과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3. 한국어 학습용 관용어의 선정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관용어 목록을 선정할 때 중요한 것은 중국과 한국의 언어, 문화 등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본고의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관용어 목록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한국어 교재에 실려 있는 관용어 중에서 선정한다.

둘째, 중국인 학습자 모국어 특성을 고려하여 모국어에서 유사한 관용어가 있는 것을 선정한다.

셋째, 문화 교육과 결합하여 문화를 권현지(2017)[14]의 문화별 관용어 분류에 따라 생활문화, 민속문화, 자연문화, 신체언어문화, 기타 언어문화로 분류한다.

3.1 한국어 교재 분석

현재 대학의 언어 교육원에서 사용하는 통합 교재중 중급 이상의 교재(서울대『한국어 3～6』, 서강대『한국어 3～6』, 이화여대『말이 트이는 한국어 Ⅲ

14) 조항록(2004a)와 이재춘(2010) 문화항목, 황정아(2008) 관용어 선정 분류를 종합해 선정.

<문화별 관용어 분류>

문화	세부분야
생활 문화	의생활, 식생활,주생활, 생활용품
민속 문화	관혼상제, 세시풍속, 민간신앙, 놀이
자연문화	동물, 식물, 자연현상
신체언어문화	신체
기타 언어문화	특수 언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Ⅴ』, 연세대학교 『한국어 3~6』)에 사용된 관용어를 대상으로 정리 분석하였다.

3.1.1 서울대 『한국어 3~6』

서울대 한국어 교재 같은 경우 중급부터 '문화 산책'이라는 교재 구성을 통해 적은 양이지만 관용어와 문화의 관계를 서술하고 있다. 중급 후반(4A:5과)에서는 관용어와 속담이 한 과의 주제로 선정되어 좀 더 깊게 관용어를 학습하고 있으며 학습한 관용어를 연습과 퀴즈 등 활동지를 따로 제시하여 충분한 연습을 유도하였다. 고급 단계인 5A부터 6B는 단원 구성에 '보충어휘'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관용어Ⅰ~ 관용어 Ⅳ'로 나뉘어 관용어가 제시 되었다. 제시할 때는 그림과 보충설명, 연습문제로 학습을 도왔다.

<표2> 서울대 한국어 교재 내에 수록된 관용어 목록

급수		관용어	총계
중급	3A	손을 보다, 손이 맵다, 손이 크다, 손이 빠르다, 손이 부족하다, 손을 놓다, 손발이 맞다, 귀가 가렵다, 얼굴이 두껍다, 발이 넓다 배꼽이 빠지다.	32
	3B	신경을 쓰다, 시간 가는 줄 모르다	
	4A	눈치가 없다,입이 가볍다, 입이 무겁다, 입이 짧다, 눈이 높다, 귀가 얇다, 발이 넓다, 신경을 쓰다, 앞뒤가 맞다, 심장이 터지다	
	4B	가슴이 뚫리다, 알게 모르게, 골치가 아프다, 손꼽아 기다리다, 고무신을 거꾸로 신다, 세상이 좁다, 세월이 쏜 살 같다, 놀부 심보, 마음에 들다	
고급	5A	손을 내밀다, 목숨을 바치다, 신경을 쓰다, 다리를 놓다, 눈에 콩깍지가 씌다, 마음에 들다, 칠월 칠석, 제 눈에 안경	70
	5B	눈에 안차다, 눈을 붙이다, 한눈을 팔다, 손에 익다, 손을 놓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귀에 못이 박히다, 코가 납작해지다, 등을 돌리다, 배꼽이 빠지다, 간이 콩알만 해지다, 바람이 불다, 고개를 젓다, 머리를 긁적이다, 코웃음 치다,입술을 깨물다, 혀를 차다, 목에 힘을 주다, 무릎을치다, 발을 (동동)구르다, 가슴을 치다, 배꼽을 잡다, 벽에 부딪히다, 깨가 쏟아지다, 찬물을 끼얹다, 사서 고생하다, 뚜껑을 열어보다, 바가지를 긁다, 미역국을 먹다, 가뭄에 콩 나듯, 강 건너 불 보듯.다람쥐 쳇바퀴 돌 듯, 가슴이 찡하다	
	6A	돈방석에 앉다, 목이 빠지다, 발 디딤 틈이 없다, 배가 등에 붙다, 배가 터지다, 상다리가 부러지다, 손가락을 빨다, 꼬리만 하다, 파리만 날리다, 허리띠를 졸라매다, 귀가 찢어질 듯하다, 날개 돋친 듯이 팔리다, 날아갈 듯이 가볍다, 눈 녹듯이 사라지다, 돈을 물 쓰듯 하다,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하다, 불 보듯 뻔하다, 소 닭 보듯 하다, 씻은 듯이 낫다, 쥐 죽은 듯 고요하다	
	6B	돼지 목에 진주, 꿔다 놓은 보릿자루, 눈엣가시, 닭똥 같은 눈물, 물과 기름, 빙산의 일각, 새발의 피, 새빨간 거짓말, 엎질러진 물, 옥에 티	
총 계			102

3.1.2 서강대 『한국어 3～6』

서강대 교재는 중급 이상 교재 분석 결과 57개만 제시하고 있다. 관용어의 대부분을 과제를 통해 문맥적으로 제시한다.

고급에 가서야 '관용어'라는 어휘를 직접적으로 제시 되어있다. 교재 5A의 5과에서는 '관용적 비유 표현'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관용어를 제시하였다. 또한 교재 6말하기의 2과에서는 의사소통 활동으로 '한국어 관용 표현의 의미와 어원을 알아봅시다.'라며 '어원'을 밝히면서 관용어의 대표 어휘의 어원을 한국 문화와 연결하여 제시하였다. 관용어 수는 적지만 다른 대학기관 교재에 비해 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휘와 문화를 통합적으로 제시하였다.

<표3> 서강대 한국어 교재 내에 수록된 관용어 목록

급수		관용어	총계
중급	3A	마음에 들다, 신경을 쓰다, 입이 무겁다, 눈이 높다, 발이넓다,떡국을 먹다.	22
	3B		
	4A	마음을 먹다, 얼굴에 씌어있다,파김치가 되다, 사서 고생하다, 신경을 쓰다, 눈 깜짝 할 사이에, 눈을 맞추다.	
	4B	신경을 쓰다(2), 바가지를 쓰다, 손에 잡히다, 무릎을 꿇다, 다섯 손가락 안에 들다, 배꼽이 빠지다, 눈을 떼다, 마음이 무겁다, 시간 가는 줄 모르다.	
고급	5A	마음이 들뜨다, 마음이 가볍다, 열매를 맺다, 허리를 숙이다, 눈을 번쩍 뜨다, 제 눈에 안경, 눈치가 빠르다, 귀신같이 알아 맞히다, 물 쓰듯 쓰다, 밥 먹듯이 하다, 불 보듯 뻔하다, 산더미 같이 많다, 얼굴이 백지장 같다, 세상을 떠나다,	35
	5B	놀부 같다, 청개구리 같다, 독 안에 든 쥐, 틀에 박히다	
	6 말하기	감쪽같다, 부랴부랴, 녹초, 날을 새다, 꿩 대신 닭, 십년감수, 그 정도는 약과, 김새다, 내 코가 석자, 소매치기, 벽창호, 삼천포로 빠지다,	
	6 읽기	세상을 떠나다, 국물도 없다, 낯설다, 입 꼬리가 올라가다, 숨이 막히다	
총 계			57

3.1.3 이화여자대학교 『말이 트이는 한국어 Ⅲ～Ⅴ』

이화여대 교재의 경우 다른 교재에 비해 관용어 학습에 적극적인 교재라고 할 수 있다. 이 교재에서는 관용어 학습을 위해 교재에 관용어와 함께 그에 맞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는 설명, 예문, 그림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말이 트이는 한국어는 구체적인 예문을 제시하여 학습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있으며, 또한 제시되는 관용어의 반대 의미이거나 같은 소재로 이루어진 표현을 묶어서 제시하고 있어서 학습의 효과가 높아진다. 그러나 어휘와 문화를 연계하여 제시하고 있지는 않아 이 분야에서 미진하다.

<표4> 이화여자대학교 『말이 트이는 한국어 Ⅲ-Ⅴ』의 관용어 목록

급수		관용어	총계
중급	Ⅲ	귀에 거슬리다, 그림의 떡, 기가 막히다, 꿀 먹은 벙어리, 꿈에도생각 못하다, 꿈에서 깨다, 꿈을 꾸다, 낙동강 오리알, 눈에 띄다,들통이 나다, 마음에 들다, 마음이 맞다, 바가지를 긁다, 비위에 맞다, 사람이 짜다, 삼천포로 빠지다, 손가락에 장을 지지다, 손에 칼만 안 들었다, 손이 가다, 손이 맵다, 손이 발이 되도록, 십 년 감수하다, 싱거운 사람이다, 얼굴에 써 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하다, 자리를 만들다, 자리를 잡다, 제 눈에 안경이다, 주머니가 넉넉하다, 쥐꼬리만 하다, 풀이 죽다, 하나부터 열까지, 하늘에 별따기, 한 잔 하다, 한 턱 내다.	35
고급	Ⅳ	기가 막히다, 김칫국부터 마시다, 꼬리에 꼬리를 물다, 꿈도 못 꾸다, 꿩 구워 먹은 소식, 냄새를 맡다, 눈살을 찌푸리다, 눈에 띄다, 눈이 어둡다, 도마 위에 오르다, 뒤통수를 치다, 듣기 좋은 노래도 한 두 번이다, 말이 나다, 말이 많다, 말이 씨가 되다, 물거품이 되다, 바늘 가는데 실가다, 발 뻗고 자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다, 배꼽을 잡다, 배부를 소리를 하다, 색안경을 끼고 보다, 세월이 약이다, 속을 털어놓다, 속이 타다, 손가락질을 받다, 손때가 묻다, 숨을 거두다, 옷이 날개다, 자리를 잡다, 주머니를 털다, 죽이 맞다,척하면 삼천리, 침을 흘리다, 큰 소리 치다, 파김치가 되다, 한눈을 팔다, 한 뿌리에서 나오다, 한 턱 내다, 해가 서쪽에서 뜨다, 허리띠	41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를 졸라매다.	
	V	거리를 좁히다, 걸림돌, 고개를 숙이다, 귀가 얇다, 기가 죽다, 두 얼굴, 마음을 사로잡다, 마음을 읽다, 마음을 터놓다, 마음을 흔들다, 마음이 통하다, 멍이 들다, 목소리가 커지다, 목소리를 내다,반기를 들다, 발 벗고 나서다, 손에 쥐다, 시야가 좁다, 시원한 대답, 열쇠를 찾다, 월계관을 쓰다, 입맛에 맞다, 자리를 잡다, 한눈에 알 수 있다.	24
총 계			100

3.1.4 연세대 『한국어 3～6』

연세대 교재 같은 경우, 본 교재와 워크북의 일종인 활용연습 교재가 있는데 본 교재에서는 관용어 수가 총 124개중의 사분의 일 정도이고 나머지가 활용연습 교재에 제시 되어 있다.

본 교재에서는 과 주제에 맞는 관용어를 배열하고 다른 한국어 교재보다 좀 더 다양한 관용어를 선정하여 학습 이해를 도왔다. 활용연습 교재는 중급(4-2)교재부터 고급(6-1)교재까지 교재별로 '관용어1.2'를 항상 포함시켜 한 교재별 20개 이상의 관용어를 제시하고 있다. 제시 방법은 관용어와 의미, 예문을 함께 제시하고 그다음 연습을 하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해 놓았지만 관용어와 문화적 설명을 곁들여 어휘와 문화를 같이 학습할 수 있게 제시 되어 있지는 않다.

<표5> 연세대 한국어 교재 내에 수록된 관용어 목록

급수		관용어	총계
중급	3-1	손이 가다	34
	3-2	가슴이 막히다, 마음을 풀다, 신경을 쓰다	
	4-1	자리를 잡다, 귀를 기울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4-2	덕을 보다, 점을 보다, 미역국을 먹다, 물 쓰듯, 밑빠진 독, 떡국을 먹다, 신경을 쓰다, 마음을 먹다, 옷이 날개다, 발이 넓다, 하늘의 별따기, 길눈이 어둡다, 눈 감아 주다, 눈이 높다, 손이 크다, 손을 잡다, 손을 떼다, 발을 끊다, 낯을 가리다, 귀에 못이 박히다, 눈 코 뜰 새가 없다, 엎드리면 코닿는다, 낯이 두껍다, 입이 무겁다, 귀를 기울이다,금이 가다, 맛이 가다, 어깨가 무겁다	
고급	5-1	날을 잡다, 뿌리를 뽑다, 싹을 자르다, 낮말을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가려운 곳을 긁어주다, 간에 기별도 안 가다, 간이 콩알만 해지다,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않다, 검은 머리 파뿌리가 되도록 살다, 겉 다르고 속 다르다, 밥 먹듯 하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꿀 먹은 벙어리,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다, 두 다리 쭉 뻗고 자다,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르다, 도마 위에 오르다, 마음은 굴뚝같다, 모기 소리만하다, 물 쓰듯 하다, 물거품이 되다, 바닥이 나다, 손때가 묻다, 양다리를 걸치다, 가지를 치다, 값을 치르다, 거울삼다, 걸음마 단계, 고개를 돌리다, 기를 죽이다, 기가 죽다, 등을 돌리다, 무릎을 꿇다, 발목이 잡히다, 발목을 잡다, 발을 맞추다	90
	5-2	매를 들다, 상투를 틀다, 눈길을 끌다, 자리 잡다, 손맛, 귀에 들어오다, 넋이 나가다, 넋을 잃다, 입을 다물다, 손끝하나 까딱 안하다, 눈을 못 떼다, 한치 앞을 못보다, 눈을 돌리다, 눈코 뜰 새 없다, 빛을 보다, 배가 부르다, 뿌리를 뽑다, 손이 가 다, 손발이 맞다, 시치미를 떼다, 얼굴 깎이다, 입을 모으다, 마침표를 찍다, 찬물을 끼얹다	
	6-1	어깨가 무겁다, 쐐기를 박다, 마음을 먹다, 손발이되다, 가슴에 품다. 발 벗고 나서다, 뒤끝이 없다, 내 코가 석자, 난다 간다 하다, 꼬리를 물다, 트집을 잡다, 발등에불이 떨어지다, 베일에 가리다, 사서 고생이다, 불똥이 튀다, 얼굴에 먹칠하다, 재미를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보다, 죽이 맞다, 싼 게 비지떡이다, 열을 올리다, 눈 밖에 나다, 코가 납작해지다, 눈살을 찌푸리다	
	6-2	마음이 풀리다, 가슴이 트이다, 손에 꼽히다, 신경을 쓰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손에 익다	
총 계			124

3.2 한국어 학습용 관용어 목록

관용어 교육은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문화 능력을 함양하는 것에도 기여한다. 이러한 관용어 수업을 통해 관용어에 대한 인식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학습자가 나름대로 다른 관용어들을 학습하여 한국인들과 일상 대화에서 유익하게 사용하게 해야 한다. 이미숙(2017:73)에 따르면 교착어인 한국어와 고립어인 중국어는 두 언어의 통사 구조가 다르다. 그리고 의미면에서 한국어와 중국어의 관용어는 같은 표현 방식이라고 해도 때로는 그 의미가 다르게 사용된다. 관용어의 교육 대상에 따라 국어 관용어와 외국어로서의 관용어로 나눌 수 있다. 외국어로서의 관용어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한국 문화와 생활 습관을 익히지 않으면 습득하기 힘든 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관용어의 정의는 관용어가 외국어로서의 관용어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외국어로서의 관용어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의 기준에 관한 문제이다.

<표6> 연구자별 외국인을 위한 관용어의 선정 기준

연구자	외국인을 위한 관용어 선정 기준
문금현 (1998)	형식적인 유형에 따라 관용 구절 → 관용어 → 관용문 순서대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한국인의 사용 빈도, 의미의 투명성 여부에 따른 난이도, 외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국인의 인지도, 구어와 문어의 조화 등으로 제시하였다
김해겸 (1998)	사용 빈도, 사용 범위, 가용성, 친숙도, 의미범위 등의 기준을 사용하였다
배규범 (2010)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관용어 목록의 수와 목록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를 제시했는데 우선 적합한 관용어 목록수를 150개 남짓으로 정하고, 다음으로 현지 학생들의 인지도와 학습자의 학습 목적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문화 교육과의 연계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박융배 (2006)	교육용 관용어 100개를 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이해 영역 및 표현 영역의 관용어 목록 선정을 3차 과정에 걸쳐 선정하였다

한국어 교육에서 한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기반이 되는 문화와 분리될 수 없으며, 이 점은 한국어와 언어생활에 대한 언어 문화 교육의 필요성을 불러일으킨다. 관용어는 문화교육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고, 이러한 관점에 따라 본고에서는 관용어 목록을 선정함에 있어 문화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 어휘를 중심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이상에서 논의한 한국어 학습용 관용어 선정의 세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관용어 목록을 추출하였다.

첫째, 기존의 한국어 중급 이상의 교재(서울대 『한국어 3~6』, 서강대 『한국어 3~6』, 이화여대 『말이 트이는 한국어 3~5』, 연세대 『한국어 3~6』)에 사용된 관용어를 정리하였다. 모든 관용어 항목 총 383개 중 중복하여 나타난 것을 빼고 나니 총 314개가 남았다.

둘째, 314개 관용어 중에서 한·중 유사 관용어를 선정하였다. 선정한 한·중 유사 관용어를 다시 생활 문화, 민속문화, 자연문화, 신체언어문화, 기타 언어문화의 5개 종류로 분류하여 표를 만들었다.

이러한 한·중 유사 관용어는 두 나라 관용어의 동형동의, 이형동의 관계를 가진 것들이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동형동의 관용어를 접할 때 공부에 쉽게 흥미를 느낀다. 이형동의 관용어는 관용어의 차이로 역사, 사회· 문화, 생활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습관, 사고 방식 등 다양한 면에서 나타나 학생들의 창의력을 유발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 추출한 122개의 한국어 학습용 관용어 목록[15]을 생활 문화, 민속문화, 자연문화, 신체언어문화, 기타 언어문화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2.1 생활 문화

<표7> 생활 문화 관용어 목록

한국어	중국어	의미[16]
옷이 날개다	人靠衣装	입은 옷에 따라 사람이 달라 보인다
주머니가 넉넉하다	钱包鼓	돈이 많다
주머니를 털다	解囊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내 놓다
허리띠를 졸라매다	勒紧裤腰带	검소한 생활을 하다
국물도 없다	连渣都没有 (찌꺼기도 없다)	돌아오는 몫이나 이익이 아무것도 없다
꿀 먹은 벙어리	哑巴吃黄连 (황련 먹은 벙어리)	속에 있는 생각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
그림의 떡	画中之饼 (그림 속의 떡)	실제로 이용할 수 없거나 차지할 수 없는 것
김칫국을 마시다	事情发生之前, 提前期待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기대하는 것
미역국을 먹다	名落孙山(낙선하다)	시험에 떨어지다
거리를 좁히다	拉近距离	관계를 가까이 하다
자리를 만들다	摆席	만날 기회를 만들다
고무신을 거꾸로 신다	戴绿帽 (녹색 모자를 쓰다)	변심하다.
금이 가다	有隔阂	서로의 사이가 벌어지다

15) 중국어 관용어는 조뢰(2011), 왕춘위(2013), 이미숙 (2017) 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빈틈이있다)	
색 안경을 끼고 보다	有色眼镜	편견을 가지고 보다
실과 바늘처럼	秤不离砣(저울과 저울추처럼)	항상 함께하다. 아주 친밀하다
쏜살 같이	如箭	아주 빠른 모양
제 눈에 안경	情人眼里出西施(애인 눈에 서시가 있다, '서시'는 월나라 미녀이다)	남이 보아서 우스운 것도 제 마음에 들면 좋아 보인다.
풀이 죽다	意志消沉(의지가 죽다)	활기나 기세가 꺾이다
한잔하다, 한잔(을) 걸치다	喝杯酒	술을 마시다

의생활과 관련된 관용어는 그 수량이 적으며 모두 동형동의어이다. 식생활 관련 '국물도 없다' 는 이형동의어이므로 한국과 중국의 음식 문화에서 차이를 보인다.

3.2.2. 민속 문화

<표8> 민속 문화 관용어 목록

한국어	중국어	의미
감쪽같다	人不知鬼不觉	남이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아무 표가 없다
놀부 심보	蛇蝎心肠 (뱀과 전갈의 마음)	인색하고 심술 궂은 마음씨

3.2.3 자연 문화

16) 박영준·최경봉(2002), 『관용어 사전』, 태학사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9> 자연 문화 관용어 목록

한국어	중국어	의미
쥐도 새도 모르게, 쥐죽은 듯하다	悄无声息 (소리없이)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꿩 구워 먹은 소식	黄鹤一去不复返 (황학이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있음직한 소식이 전혀 없을 때 이르는 말
시치미를 떼다	装蒜 (마늘을 담다)	딴청 부리다. 모르는 체하다
가뭄에 콩 나듯	廖廖无几(매우 드물다. 몇 개 되지 않다)	매우 적다
월계관을 쓰다	带上桂冠	승리하다. 우승하다
파김치가 되다	精疲力尽 (힘이 빠지다)	지치다
강 건너 불구경	隔岸观火	자기에게 관계없는 일이라고 하여 무관심하게 방관함
물 쓰듯이	如用流水	돈 따위를 흥청망청 낭비하다.
바람(을) 쐬다	透风	기분 전환
바람맞다	放鸽子 (비둘기를 보내다)	상대가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여 헛걸음하다.
바람을 피우다	外遇 (밖에서 만나다)	배우자 아닌 이성과 사귀다
불똥이 튀다	迸发火星	관계 없는 사람에게 화가 미치다
엎질러진 물이다	生米煮成了熟饭(생쌀이 이미 밥이 되다)	돌이킬 수 없는 상태
열 받다	上火 (열을 올리다)	흥분되다, 화내다
찬물을 끼얹다	泼凉水	일을 망치다, 분위기를 깨다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太阳打西边出来	있을 수 없는 일의 비유

민속 문화, 식물 관용어 등은 문화적인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형동의 관용어 이해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더욱 필요하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자연 현상 관련 관용어는 한•중 관용어 중에서 유사 정도가 매우 높다. 그 원인은 중국과 한국은 기후, 지리 등 자연 조건이 비슷하기 때문에 관용어가 만들어진 조건이 비슷하게 형성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3.2.4 신체 언어 문화

<표10> 신체 언어 문화 관용어 목록

한국어	중국어	의미
가슴이 찡하다	心酸	감동하다
가슴이 트이다	胸襟开阔	마음 속에 맺힌 것이 풀리다
간이 콩알만 해지다	魂不附体（혼이 몸에 붙지 않다）	겁이 나서 몹시 두려워지거나 무서워지다
골치가 아프다	头疼	일이나 사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
귀가 가렵다,귀가 간지럽다	耳朵痒	남이 제 말을 하는 것 같다. 자신에 대한 소문으로 마음이 편치 않다
귀가 아프다	耳朵 起茧（귀에 굳은살이 나다）	너무 여러 번 들어서 듣기가 싫다.
귀가 얇다	耳根软 (귀끝이 약하다)	남의 말에 따라 행동하다
귀를 기울이다	侧耳倾听	주의해 듣다
귀에 거슬리다	不入耳（귀에 못이 들어가다）	듣기 거북하다
기가 막히다	不可思议（생각을 못하다）	어떤 일이 놀랍거나 언짢아서 어이없다
기가 죽다	泄气 (기가 빠지다)	기세가 꺽이어 약해지다
길눈이 어둡다	路痴（길치）	가 본 길을 잘 찾아가지 못할 만큼 길을 잘 기억하지 못하다
꼬리에 꼬리를 물다, 꼬리 물다	首尾相接（머리와 꼬리가 연결되다）	연이어 나타나다
꿈도 꾸지 마라, 꿈 깨라, 꿈도 안 꾸다	做白日梦	허황된 생각을 버려라
낯을 가리다	认生	처음 보는 사람을 피하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낯이 설다	面生	서로 알지 못하여 친숙한 맛이 없어 어색하다
내 코가 석자	自身难保(자신을 보호하지 못하다)	자기 앞에 닥친 일이 큼
넋을 잃다	掉魂	어떤 일에 집중하여 다른 것을 볼 수 없게 되거나 아무 생각이 없이 있다
녹초가 되다	精疲力尽(정신과 힘이 빠지다)	맥이 풀어져 힘을 못 쓰고 늘어지다
눈 감아 주다	睁一只眼闭一只眼	
눈 깜짝할 사이	一眨眼的功夫	짧은 순간
눈 녹듯 사라지다	转瞬即逝	사물의 형상이나 기분이 쉽게 사그라지는 것
눈 밖에 나다	忍人讨厌	신임을 잃고 미움을 받게 되다
눈앞이 캄캄하다	眼前漆黑	절망적인 생각이 들다
눈에 뜨이다, 눈에 띄다	醒目	현저하다, 발견되다
눈엣가시	眼中钉	몹시 미워 눈에 거슬리는 사람
눈을 돌리다	转移兴趣(취미를 바꾸다)	관심을 돌리다
눈이 높다	眼光高	무엇을 선택하는 기준이 높다
눈이 어둡다	失明 (광명을 잃다)	욕심 때문에 판단력을 잃다
눈치코치가 없다	没眼力见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또는 어떤 주어진 상황을 빨리 알아차리지 못하다
눈 코 뜰 새 없다	不可开交	바쁘다
다리(를) 놓다	搭桥	중계하다
양다리를 걸치다	脚踏两只船(두 배를 걸치다	양쪽에서 이익을 얻기 위하여 두 편에 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말
뒤통수를 치다	打后脑勺	예상하지 못한 행동으로 당황하게 만들다
마음에 들다	合心意	좋아하다
마음은 굴뚝같다	心急火燎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많다
마음을 굳히다, 마음을 먹다	下定决心	뜻을 정하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마음을 사로잡다	抓住人心	마음을 집중하게 하다
마음을 읽다	看透了(사람이름)的心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다
마음이 들뜨다	心浮气躁	흥분하다
마음이 맞다	臭味相投	서로 뜻이 통하다
마음이 무겁다	心情沉重	어떤 일이 계속 생각되어 편치 않다
마음이 풀어지다	释怀	오해 등이 풀려 마음이 좋아지다
마음이 통하다	心灵相通	서로 생각이 비슷하다
목(이) 빠지다	望眼欲穿 (눈이 빠지다)	몹시 애타게, 오래
발 디딜 틈이 없다	无处下手 (손 댈 틈이 없다)	몹시 붐비다
발목(을) 붙잡았다, 발목을 잡다	抓住小辫子 (짧게 땋은 머리를 잡다)	벗어나지 못하게 하다
발 벗고 나서다	赤膊上阵 (팔 벌리고 나서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다
발등에 불을끄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다	火烧眉毛 (눈썹을 태우다)	바로 앞에 떨어지다
발을 끊다	绝交	절연하다. 왕래를 그만두다
발이 넓다, 발이 크다	涉足广	교제 관계가 넓다
배가 부르다	站着说话不腰疼	아쉬울 것이 없다
배꼽 빠지다	笑掉大牙 (이가 빠지다)	우습다
배꼽을 잡다	捧腹	우습다
속이 타다	心焦 (마음이 타다)	걱정이 되어 마음이 달다
손가락질 받다	千夫所指	비난이나 비웃음을 당하다
손발이 맞다	合拍	생각이나 행동이 일치하다
손에 익다, 손에 잡히다	上手	익숙하다
손에 장을 지지다	猴年马月(원숭이띠 해의 말의 달,	자신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말의 표현
손에 쥐다	撰在手心	소유하다, 아래에 두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손을 내밀다	伸手	도움을 하거나 요구하다
손을 놓다,손을 떼다	撒手	일을 그만 두다. 방치하다
손을 잡다	联手	서로 도와 가며 일하다
손이 딸리다, 손이 모자라다	人手紧	일손이 모자라다
손이 맵다	心狠手辣	일하는 것이 야무지다
손이 크다	大手大脚	아량, 배포, 씀씀이 등이 넉넉하다
신경 쓰다	花心思	관심을 갖다
십년감수하다	折十年寿	놀라다
어깨가 무겁다	担子重	책임이 무겁다
얼굴이 두껍다	脸皮厚	뻔뻔하다
입맛에 맞다, 입에 맞다	对味儿	취향에 맞다
입을 모으다	异口同声	한결 같이 말하다
입이 가볍다	长舌头 (혀가 길다)	수다스럽다. 비밀을 누설하다
입이 무겁다	嘴巴严 (입이 빈틈없다)	말수가 적고 듬직하다 비밀을 지킬 만큼 신중하다
입이 짧다	嘴刁 (입이 간사하다)	식성이 까다롭다
침을 흘리다	垂涎三尺	탐내다
코가 납작해지다	泄气的皮球（공기 빠진 축구공)	망신을 당하다. 위신이나 위세가 뚝 떨어지다
코앞에 닥치다	迫在眉睫 (눈썹에 다가오다)	어떤 일에 시일이 얼마 남지 않다
콧대가 높다	鼻子翘到天上	건방지다. 잘난체 하고 뽐내다
내 코가 석자다	泥菩萨过江, 自身难保(진흙으로 만든 보살이 강을 건넌다)	자기 앞에 닥친 일이 급하다
허리(를) 굽히다	折腰	겸손한 태도를 취하다

신체 관용어는 한·중 유사 관용어 목록에서 66%를 차지하고 있다. 신체 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용어는 단순하게 신체 부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나 정서 등을 암시적, 비유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이다

3.2.5 기타 언어 문화

<표11> 기타 언어 문화 관용어 목록

한국어	중국어	의미
맛이 가다	走味了	정상적인 상태를 벗어나다
삼천포로 빠지다	跑题(주제에서 벗어나다)	엉뚱한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다
세상을 떠나다	离世	죽다
틀에 박히다	按图索骥 (그림을 보고 그와 같은 준마를 찾다)	진부하다

기타 관용어 쌍 역시 유사 정도가 높아 관용어를 지도할 때, 중국어 특성을 고려하여 지도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4. 관용어를 활용한 한국어 어휘 및 문화 교육 방안

4.1 중국어권 학습자들의 인식 조사

다음은 현재 한국에서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거나 학습경험이 있는 중국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한국어 관용어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제시한다. 대상 인원은 모두 40명의 중국인 학생으로 여자 21명, 남자 19명이며 그중 초급 3명, 중급 16명, 고급 24명이다.

학생은 모두 광주 시내 소재 어학원, 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조사 결과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관용어의 학습여부는 다음과 같다.

관용어에 대해 학습 경험은 88%가 가지고 있었다. 초급은 관용어의 학습경험이 적었고, 중급·고급으로 단계가 올라갈수록 관용어의 학습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 경로는 각 급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국어 교재를 통해서 관용어를 학습한 경우가 55%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로는 한국인과의 대화로 23%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교재가 매우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어 학습자들의 관용어 이해 정도는 모두 이해할 수 있는 학습자는 설문응답자 40명중 3명[17]으로 7.5%였고, 75퍼센트를 이해할 수 있는 학습자는 40명중 8명으로 20%를 차지했고, 50퍼센트를 이해 할 수 있는 사람은 14명으로 35%였으며 나머지는 0%-50% 내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그러면, 학습자들은 습득된 관용어를 대화에서 얼마나 활용하고 있을까?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할 때 한 번이라도 관용어를 사용한 적이 있었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5%가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으나 응답자중 12%만이 가끔 사용한다고 대답하였고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가 가장 높았다. 이것은 관용어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지 않거나, 교실 수업과 실생활과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관용어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에게 왜 관용어를 사용했었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 다양한 응답이 나왔다. 관용어를 사용하면 의미를 쉽게 전달할 수 있어서가 4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관용어가 재미있어서 25%, 관용어를 사용하면 한국어를 잘 하는 것 같아서 23%, 기타가 9%로 나타났다. 관용어를 사용하는 중국인 학습자도 관용어를 사용했을 때 의미를 보다 쉽게 전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한국어 학습자 중에 관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학습자들은 뜻은 알고 있지만 말하기 연습이 충분하지 않아 사용하

17) 조선족 응답자가 40명중 4명으로 조선족은 비교적 관용어에 익숙해 있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지 않는다고 응답자의 70%가 대답하였다.

다음은 한국어 관용어의 학습 필요성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조사 결과 학습자들은 관용어 교육 여부에 대해서 모두가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관용어에 대해 학습하고 싶고, 이를 통해 좀 더 고급 한국어를 구사하고 싶어 했으며, 한국인 모어 화자와 자유롭게 대화를 하고자 하였다. 왜 학습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관용어를 통해 한국어를 더 많이 알 수 있다가 가장 많이 나왔다.

한국어 관용어를 학습할 때 어휘와 문화를 같이 학습하는 것에 대한 물음에 대해 응답자의 73%가 어휘와 문화를 같이 학습하면 이해가 잘 되고 기억에 오래 남아 한국어 학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국어 관용어를 어휘와 문화를 동시에 학습할 때 관용어가 오래 남아 활용을 더 쉽게 할 수 있고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학습자들은 한국어 관용어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으며 활용하고 있을까? 본고는 한국어 학습자들의 실제 관용어 인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국제교육진흥원에서 선정한 〈한국어 속담 100 관용어 100[18]〉 중에서 관용어 일부를 발췌하여 조사를 하였다.

관용어에 대한 인식 조사는 학습자들이 인식하는 관용어와 그 인식하는 관용어를 얼마나 사용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표12> 중국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관용어 인지및 사용도

번호	관용어	인식자		사용자 비율(%)
		인원	비율(%)	

18) 『한국어 속담 100, 관용어 100』의 선정 기준은 1)현대 한국어에서 사용하는 빈도가 넓은 표현, 2)한국어 학습자가 실제 언어 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표현, 3) 학습자의 연령(성인) 및 목적(한국어 학습 및 한국문화 이해)에 적합한 표현-김정화,최은규(2002), 국제교육진흥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	발등에 불이 떨어지다	16	40	–
2	발이 넓다	26	65	–
3	배꼽을 쥐다(잡다)	15	38	–
4	손을 놓다	20	50	–
5	입이 짧다	29	73	35
6	제 눈에 안경	12	30	–
7	깨가 쏟아지다	5	13	–
8	발 벗고 나서다	7	18	5
9	손발(이) 맞다	14	35	20
10	손이 크다	28	70	25
11	입이 가볍다	29	73	20
12	눈을 똑바로 뜨다	16	40	13
13	낯이 설다	14	35	8
14	손을 씻다	15	38	8
15	눈이 빠지게 기다리다	15	38	5
16	간이 붓다	12	30	–
17	숟가락을 놓다	10	25	–
18	간담이 서늘하다	3	8	–
19	죽도 밥도 안되다	12	30	–
20	식은 죽 먹듯	14	35	–
21	눈(이) 높다	30	75	50
22	바가지를 쓰다	10	25	3
23	국수를 먹다	13	33	5
24	그림의 떡	22	55	28
25	미역국을 먹다	23	58	28
26	바가지를 긁다	12	30	–
27	시치미를 떼다	8	20	–
28	비행기를 태우다	13	33	5
29	산통이 깨지다	3	8	–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0	김칫국을 마시다	8	20	–
31	함흥차사	3	8	–
32	엎질러진 물	3	8	–
33	내 코가 석자	6	15	–
34	허리띠를 졸라 매다	12	30	–
35	쥐도 새도 모르게	17	43	–
36	파김치가 되다	4	10	–
37	제 눈에 안경	12	30	–
38	강 건너 불구경	9	23	–
39	찬물을 끼얹다	8	20	–
40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15	38	5

인식자 비율과 사용자 비율이 가장 높은 관용어는 '눈이 높다(眼光高)'로 신체관용어로서 표현과 의미가 모두 같은(동형동의어) 관용어로 인식비율 75%, 사용비율이 50%로 나타났다. 이는 관용어가 모어에 있는 경우로 중국인 학습자에게 익숙하고 직역했을 때에 모어와 차이가 없어 이해하기 쉬울뿐 아니라 어휘도 짧아서 인식비와 사용비가 다른 관용어에 비해 높게 나타나난 것으로 보인다.

4.2 한국어 관용어 교수 방안

외국인 학습자들이 언어를 배우며 오류를 범하는 이유로 생활 문화 차이, 역사적 배경 차이, 사고방식의 차이로 인한 가치관 차이, 조어법 및 문법상 차이를 들 수 있다.

같은 소재일지라도 문화 차이로 인하여 의미는 같지만 표현이 유사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자면 '국수를 먹다'는 한국어 관용어로 결혼하다를 의미하는데 중국어에 결혼한다를 의미하는 관용어는 '吃喜糖'또는 '喝喜酒' 라고 한다. 한국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서는 장수의 의미로 결혼식 손님들에게 국수를 대접하고, 중국에서는 사탕을 나눠 주며 기쁨을 나눈다. 이런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중국어 학습자는 어휘 학습만으로는 제대로 언어를 학습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의미가 같지만 표현이 다른 관용어에 대해서 학습자 오류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한국어에서 '배가 아프다' 는 질투하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중국어에서는 질투하다를 '眼红 (눈이 빨개지다)' 으로 표현한다.

이와 같이 한·중 문화의 차이가 적게 나는 관용어 일수록 학습자가 이해도나 사용도가 높음을 알 수 있는데, 어휘의 직역 자체만으로는 추측이 가지 않는 관용어거나, 이형동의어 등을 교육함에 있어서는 더욱 문화와 어휘를 동시에 교육하는 것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학습 오류를 줄이고 이해도와 사용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관용어는 초급 학습자 보다는 중급 이상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교과 분석이나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등급을 정하는데 있어서 TOPIK[19]에서 정한 등급별 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본고에서 한국어 교재 분석을 통해 문화별로 분류한 관용어 중 이형동의어 중급어휘와 문화를 통합해서 교육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는 모형제시를 하고 다음으로 3장에서 문화별로 분류한 것에 따라 문화별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모란 모형에 따른 수업 지도안 제시를 하고자 한다.

4.2.1 모형제시

본 수업 모형은 모란(Moran)(2001)이 개발[20]한 것으로 학습자가 학습의 중심이 되고 문화를 학습하는데 있어서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있

19)한국어능력시험(TOPIK) 홈페이지의 등급별 평가 기준표 참고 (http:,,www.topik.go.kr,)
20)모란(Moran)(2001)의 모형은 콥(Kolb 1984)의 경험학습 모형에 문화 수업을 접목시킨 것으로 그 단계가 물질문화에서 정신문화에 이르기까지 심층문화를 탐구하기에 적합하고 문화 목표의 인지, 기능, 태도적인 면을 모두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다. 또한 교사가 학생과의 긴밀한 상호 작용 수업을 통해 문화를 지도할 때 문화를 더욱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모형으로 관용어를 활용하여 어휘와 문화를 통합적으로 수업하기에 적합한 모형이다.

<표13> 모란(Moran)(2001)의 문화 수업 모형 단계

단계	문화지식	학습자의 경험
방법 알기 (Knowing How)	- 모든 행위의 문화 실행 - 언어적, 비언어적 요소 포함	- 학생들이 경험에 참여 - 경험의 형태나 내용에 따라 지적, 육체적, 감정적, 영적인 다양한 수준에 참여
대상 알기 (Knowing About)	- 특정문화나 언어에 관한 지식	- 문화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 - 경험한 후에 나타나는 것으로 경험적인 사실에 머무르며 무엇이 일어났는지 파악하기 위해 일어난 일을 되새김
이유 알기 (Knowing Why)	- 근본적인 문화 관점 - 문화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어 있는 인식, 신념, 가치관, 태도	- 문화 현상을 설명, 분석, 조사, 자신의 문화와 비교 - 학생 자신이나 다른 출처로부터 나온 설명, 이론을 발전시켜 그 경험에 의미부여
자신 알기 (Knowing Oneself)	- 타문화 경험하는 주체로서 자기 자신의 가치, 의견, 문화적 가치 기준	- 개인적인 학습목표나 내용의 성격, 경험의 형태에 부합하는 전략을 찾아내서 경험을 다시 시도

이미숙(2017)은 모란의 모형을 적용하여 중국인 학습자에게 맞게 다음과 같이 재구성하였다.

<표14> 중국인 학습자 관용어 수업 모형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단계	제재	활동,자료	교사 발문
방법알기	관용어 제시	노래, 춤, 시청각 자료, 실물자료, 시범, 문화 TPR[21]	어떤 관용어인가? 어떤 의미인가?
대상알기	활용상황	노래, 춤, 시청각자료, 실물자료, 시범, 문화 TPR, 활동지	어떻게 사용하는가? 어떤 상황들에서 사용하는가?
이유알기	모국어 대응 관용어	문화비교, 인터넷 및 기타매체자료	어떤 문화적 배경과 가치관인가? 모국어에서는 어떤 대응 관용어가 있는가? 모국어와의 차이점, 공통점은 무엇인가?
자신알기	수용, 반성, 확장	토론, 발표, 역할극	어떤 느낌으로 사용하는가? 다른 상황은 무엇이 있는가? 잘못된 관용어 사용 상황은 무엇인가?

이미숙(2007:118-119)에 의하면 이 모형은 문화 교육에 유용한 교육 방법으로 각 단계별로 교사 역할과 학습자 활동은 다음과 같다.

· 방법 알기 - 이 단계는 문화적 사실을 습득하는 단계로 행동, 몸짓, 말, 접촉, 시선 등 목표 문화권 사람들의 생활방식을 포함하며, 말하기, 행동하기, 움직이기, 노래하기, 춤추기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시범을 보일 수 있고 교수할 문화에 대해 여러 매체를 통해 다양한 예시를 제시할 수 있다.

21) 전신반응 교수법(Total Physical Response Method): 음성언어 중심 교수법이다. 특히, 음성언어 가운데 말하기보다 듣기 능력이 더욱 강조된다. 이 교수법에서는 듣기활동과 신체활동을 통하여 언어의 교수와 학습이 이루어진다. 교사가 학습자에게 명령어로 된 자극을 제시하고, 그 자극을 이해한 학습자가 신체적으로 반응을 보임으로써 교수와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대상 알기 - 이 단계는 문화 정보를 수집하고 증명하는 단계로 학습자에게 문화와 언어에 대해 정확한 최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교사는 학습자들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 안내해 주고, 학습자들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 이유 알기 – 이 단계는 문화적 관점에 대한 이해를 발달시키는 단계로 문화적인 모든 양상이 내재되어 있다. 잠재된 인식, 신념, 가치, 태도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러한 이해 속에서 목표 문화의 경험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이는 학습자들이 목표 문화의 문화적 현상을 설명, 분석,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자신의 모국어 문화와 비교하는 것을 포함한다. 학습자는 문화를 관찰하고 문화경험으로 얻은 내용을 문제해결, 분석, 설명, 문화 비교 등을 통해 구조화시킨다.

· 자신 알기 – 자신을 안다는 것은 문화 학습에서 학습자 스스로 학습을 조절하고 점검·평가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목표어의 문화를 경험하는 자신의 가치, 의견 그리고 문화적 가치의 기준을 아는 것이다. 문화를 이해하고 적용하고 융화하며 결국 그들 자신과 자신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 모형에서 중요한 것은 학습의 초점은 학습자에게 있고, 교사는 학습자가 문화를 이해하고 인식하고 융화하도록 하는 촉진자(facilitator)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4.2.2 문화별 교육 방안

본 연구에서는 문화 관용어와 어휘를 묶어서 교육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학습자에게 관용어를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한다. 이는 어휘를 교육하면서 문화와 관련된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 학습자들로 하여금 목표를 명확하게 알고 인식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장에서 제시할 방안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모란 모형에서 학습단계별 교육 방안 제시를 하고자 한다. 아래 제시하는 모란 모형은 방법 알기(Knowing How) → 대상 알기 (Knowing About) → 이유 알기(Knowing Why) → 자신 알기(Knowing Oneself) 로 되어 있는데 그 중 '방법알기'와 '이유알기' 부분을 중심으로 다룬다. 방법알기에서 다루는 내용은 어떤 관용어인가? 어떤 의미인가? 를 사전에서 찾기, 드라마 등의 장면 제시, 그림카드 제시 등을 통해 추측해 보도록 하고, '이유알기' 에서는 관용어의 문화적 배경과 가치관을 이해하고, 모국어에서 한국어 관용어와 대응하는 중국어 관용어를 제시하고 중국어 관용어의 의미와 문화적 배경에 대해 알아본다. 모국어와 표현적, 의미적 차이점 공통점이 무엇인지 학습자와 함께 토론하고 발표하기를 통해 어휘와 문화를 동시에 학습한다. 이 방법은 관용어의 어원과 문화적인 요소를 교수·학습해서 관용어의 어휘와 문화를 학습할 수 있어 이 단계를 중심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언어교육과 문화교육의 통합성과 적절성, 그리고 연계성을 강조한 유의미한 교육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중에서 생활 문화중 두 관용어를 다루도록 하겠다. 생활문화는 조항록(2004a) 위계표[22]에서 보듯이 초급 단계에서 다뤄야 할 문화요소이며 단순한 암기가 아닌 어휘가 형성되게 된 문화 이해로서의 인식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표15> 문화분류별 교육방안 예시 -생활문화 I

22) 조항록(2004a:212) 분야별 문화 구성 요소의 단계 배열

분류	초급	중급	고급
의식주	◎	○	
역사		○	◎
민속		○	
사상			◎
관념과 가치관		○	◎
일상생활	◎	○	

◎ 중점적으로 다룸, ○ 보통수준으로 다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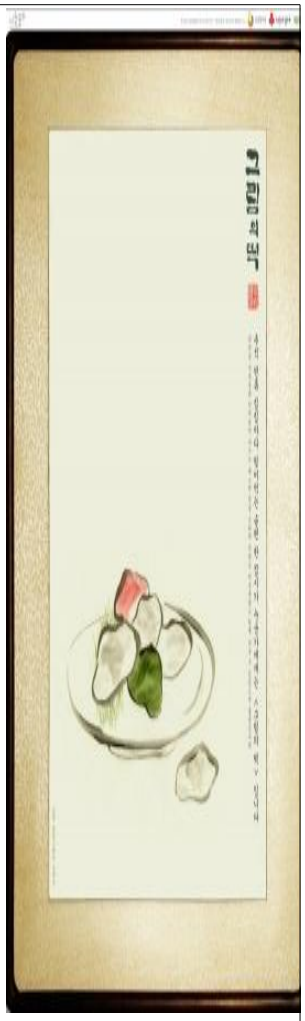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그림의 떡

1.방법알기
· 어휘의 기본 의미 설명 : 그림의 떡은 탐스럽지만 손에 넣을 수 없다는 뜻으로, 바라는 모습이기는 하나 실제로 이용할 수 없거나 이루어지기 힘든 경우를 이르는 말.
· 본래 개념적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 의미 파악
▶ 그림: 선이나 색채를 이용하여 사람이나 사물, 풍경 또는 감정이나 상상력을 구체적인 모양으로 나타낸 것
▶ 떡: 곡식 가루를 찌거나 삶아 익힌 음식을 통틀어 이르는 말
– 대화
영희: 송중기가 송혜교와 결혼한대. 들었어? 송중기, 너무 멋져!
철수 : 너한테는 그림의 떡이지.
영희 : 그래, 너한테도 송혜교는 그림의 떡이야

2. 이유알기
· '그림의 떡'이라는 관용어 표현의 문화적 배경과 가치관 이해하기
– 중국어로는 畵中之餠,畵餠充饑
그림 화(畵). 떡 병(餠). 찰 충(充), 주릴 기(饑)
유래: 삼국지 노육전에 실려 있는 내용으로 노육은 한나라 명제의 신임으로 인재를 등용하는 일을 맡게 되었고, 황제는 명성만 보고 인재 등용을 하지 말라는 말을 하였는데 그때 왕이 '명성이란 땅에 그린 그림과 같아서 먹을 수 없는 것이다(得其人與, 在盧生耳. 選擧莫取有名, 名如畵地作餠, 不可啖也)라고 말하였다. 노육은 왕을 설득해 인재를 등용할 때 시험 제도를 다시 시행하는데 공헌하였다. 여기서 유래하여 화병충기는 그림의 떡처럼 먹을 수 없어 아무런 쓸모가 없고 실속이 없는 일을 비유하거나, 먹을 수 없는 그림의 떡으로 배를 채우는 것처럼 허황된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안하는



그림의 떡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일을 비유하는 것에 사용된다. · 모국어와 표현적, 의미적 차이점과 공통점이 무엇인지 찾아보기

<표16> 문화분류별 교육방안 예시 –생활문화Ⅱ

– 고무신을 거꾸로 신다 1.방법알기 · 어휘의 기본 의미 설명 : 변심하다 남녀가 사귀다가 여자가 변심하여 헤어지는 경우에 쓰는 말이다. 한국에서는 남자가 성년이 되면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해야 하는데 이 시기가 여자 친구를 많이 사귀는 나이이다. 여자는 2년 이상의 기간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지 않아 남자 친구가 군대를 가면 여자는 보통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변심하여 다른 남자를 사귀는 여자 친구를 가르켜 '고무신을 거꾸로 신다'(변심하다, 헤어지다)라고 한다. 예전에 한국 사람들은 고무신을 신었는데 고무신은 앞뒤가 잘 구분이 되지 않아 앞뒤를 바꿔 신어도 잘 표시가 안났다고 한다. 그래서 남자 친구가 군대 가면 남자 친구를 바꾸는 것이 고무신 거꾸로 신는 것만큼 쉽다고 해서 붙여진 말이라는 설이 있다. · 본래 개념적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 의미 파악 ▶ 고무신: 고무를 재료로 하여 만든 신. ▶ 거꾸로: 차례나 방향, 처지나 이치 등이 반대로 되게 ▶ 신다 : 신, 버선, 양말 따위를 발에 꿰다. – 대화 수진: 그 유명 연예인 커플(ㅇㅇ)이 헤어졌대! 다혜 : 그래? 무슨 일이 있었어? 영희 : 여자 연예인이 <u>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대</u>!	 고무신을 거꾸로 신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수진 : 그랬구나, 남자 연예인 힘들겠다. 참, 니 남자 친구 군대 갔지, 잘 지낸대? 다혜 : 그래, 전화 통화 할 때마다 고무신 거꾸로 신지 말라고 해서 귀찮아. 수진 : 와, 부럽다! 나도 그런 남자 친구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2. 이유알기 · '고무신을 거꾸로 신다'라는 관용어 표현의 문화적 배경과 가치관 이해하기 - 중국어로는 戴绿帽子[dài lǜ mào·zi] (녹색 모자를 쓰다) 일 대(戴). 초록빛 록(绿). 건 모(帽), 아들 자(子) 유래 : '戴绿帽子'라는 관용어는 '绿头巾'을 가리키기도 한다. 중국 당나라 때 파란 두건을 씌워 치욕을 주고 풀어주는 풍속이 있었는데 그 후 원(元), 명(明) 시대에 기생의 남편들은 녹색 모자를 써야한다는 규정이 생기면서 유래된 것이라고 한다. 이 관용어는 부인이 다른 남자와 부정한 짓을 했을 때 사용한다 · 모국어와 표현적, 의미적 차이점과 공통점이 무엇인지 찾아보기	

방법알기에서 관용어를 제시할 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하면 그 효과가 더 좋을 것이다.

4.2.3 수업지도안

다음은 수업모형을 적용한 수업지도안을 통해 중국인 학습자에게 어휘와 문화를 동시에 교습하는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이미숙(2007)의 모형이 어휘와 문화 통합교육을 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되어 이 모형을 사용하기로 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17> 수업 지도안

대상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	급	중급
학습목표	모국어 특성을 고려하여 관용어의 언어문화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목표어휘	시치미를 떼다: 자신이 하고도 하지 않은 척하거나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다.		
대응 모국어	装蒜(마늘을 담다: 이형동의)		
학습 단계	교수활동	매체 및 유의점	
방법 알기	・수업 제재 관용어 제시 – '시치미를 떼다' ・제재 관용어의 기본의미를 설명한다 ・제시된 관용 표현의 구성어휘를 사전에서 찾아 본래의 개념적 의미 파악하기 ☞'시치미를 떼다' ▶ 시치미[23] : 시치미는 매의 꽁지에 달아주는 주인의 표시로서 사냥할 때 매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기구이다. 매 꼬리의 기다란 깃털에 '응주(鷹主) ○○리(里) 곽돌(郭乭)·번개쇠' 라는 식으로 쓰는데 이것을 '시치미'라고 한다. 시치미는 매주인의 주소와 이름, 매 이름을 기록한 것으로 일종의 매 명찰이다. ▶ 떼다 : 하고도 하지 않았다고, 또는 알고도 모른다고 단호하게 부인한다는 뜻 시치미	・노래, 춤, 시청각 자료 실물 자료, 시범화 TPR ・시청각 자료 선정에 있어서 지나치게 흥미 위주로 된 내용은 피한다. ・교사는 목표관용어와 관련된 시청각자료를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부분들로 편집하여 준비한다. ・학습자에게 시청각 자료의 간단한 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기록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매사냥은 삼국시대부터 있었다. 매사냥은 특히 북쪽 지방에서 성행했는데, 해동청이 유명하여 고려 때는 몽골에 공물로 바치기도 했다. 해동청과 같이 매를 '수지니', 야생 매를 '산지니'라고 한다. '보라매'는 그해에 태어난 새끼 매를 길들인 것이다. 산지니는 사냥에 이용할 수 없다. 새끼 때부터 한쪽 발에 줄을 묶어 주인인 '수알치'가 거의 시선을 떼지 않고 길들인다. 덜 재우고 덜 먹여야 사냥할 때 난폭하고 달아나지 않는다. 그러나 달아날 경우를 대비해 쇠뿔을 얇게 깎아 만든 이름표에 주인의 이름과 주소를 적고 매의 꽁지 털 속에 매단다. 이 이름표가 평안북도 말로 '시치미'이다. 매는 달아나도 배가 고파 멀리 가지 못하므로 인근 마을에서 발견한 자가 있으면 시치미에 적힌 주인에게 돌려준다. 주인은 그에 대한 사례를 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간혹 시치미를 떼고 슬쩍 가로채는 사람이 있었다. 여기에서 '시치미를 떼다'라는 말이 생겨났다. *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예문을 통해 제시된 관용 표현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살피기 ・어떤 관용어인가? ・어떤 의미인가? – 관용 표현의 의미를 추측해서 말하도록 한다. : '시치미를 떼다' 의미 추측, 발표.	경 설명을 해 준다. ・시청각 자료는 학습자들이 정확히 들을 수 있도록 반복해서 시청하게 한다. ・주요 표현 이외의 부분에서 학습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질의를 통해 전달 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대화형 문장 제시 수진 : 수지야, 내 하늘색 원피스 못 봤니? 오늘 데이트 때 입고 가야 하는데 어디에 있지? 수지 : 나 못 봤는데... 수진 : 엄마! 내 하늘색 원피스 혹시 보셨어요? 엄마 : 응, 좀 전에 수지가 자기 방에 가지고 가던데. 수진 : 수지야, 니가 내 원피스 가져 갔다면서? 어디서 <u>시치미를 떼고</u> 있는거야? 수지 : 너무 예뻐서 나도 한번 입어 보고 싶었어...	
대상 알기	・생각을 발표하게 한 다음, 사고의 오류를 바로 잡아 목표 관용어에 대한 이해를 시키고 확인한다. ・어떻게 사용하는가? ・어떤 상황들에서 사용하는가? ・'시치미를 떼다'라는 표현을 넣어 자신의 경험담을 발표하도록 한다. ・활동지 – 제시된 문장에서 제재 관용어가 관용어로서의 쓰임이 올바른지 맞추기. – 문장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지우고 직접 관용어를 사용해 내용을 완성시키게 한다	・노래, 춤, 시청각 자료, 실물 자료, 시범, 문화 TPR, 활동지 ・목표 관용어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준다. ・학습자에게 연상기회를 주는데 주력한다
이유 알기	・'시치미를 떼다'라는 관용어 표현의 문화적 배경과 가치관을 이해하기 ・모국어에서 '시치미를 떼다'에 대응하는 중국어 관용어'装蒜'의 의미와 문화적 배경에 대해 알아보기 – 装蒜[zhuang suan] 차릴 장, 마늘 산 : 딴청 부리다, 모르는 체하다. – 중국 전래고사에서 한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 수선화를 심었는데, 수선화 꽃이 피지 않아 수선화가 마늘인 척 한다고 말한 데서 유래한 것으로, 이는 수선화의 줄기와 잎 모양이 마늘과 닮았기 때문이다. ・모국어와의 표현적, 의미적 차이점과 공통점은 무엇	비교문화, 인터넷 및 기타 매체자료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인지 학습자와 함께 검토하기 ・중국인들이 목표 관용어 사용에서 오류를 나타내는 이유에 대해 생각하고 발표하기 – 인터넷, 기타 매체 자료 찾아보기 – 소집단 토론	
자신 알기	・제재 관용어의 느낌이나 사용상황에서 화자의 태도를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소집단별 토론을 한 후 개별적으로 발표한다. ・관용어 문장을 만들 때 어떤 연결어미를 사용하는지에 대해 정리하기 ・유사한 상황에 대한 대본을 제시하고 소집단별로 역할극을 한다. – '시치미를 떼다'가 나오는 드라마, 영화에서 장면을 찾아 틀만 제시한다. – 학습자가 직접 대본을 만들어 역할극을 한다. ・'시치미 떼다'와 유사한 어휘를 인터넷, 매체, 서적을 통해 찾아보고, 그 활용 상황과 본시 제재 관용어와의 쓰임 차이, 대응하는 모국어 관용어 등에 대해 조사하는 과제를 제시한다.	토론, 발표, 역할극

5. 결론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들에게 관용어를 효과적으로 교수할 방안에 대하여 그동안 끊임없이 논의 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관용어를 활용하여 어휘와 문화를 동시에 효과적으로 교육 하는 방안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특별히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학하는 외국인 학생 비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인 학습자들을 위한 관용어 학습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언어를 학습한다는 것은 단순히 문법과 단어를 아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언

23)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 향토문화전자대전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어는 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회 전반에 걸친 문화가 언어에 녹아들어 있어서 목적 언어 사회의 문화를 모른다면 아무리 어휘와 문법을 잘 안다고 할지라도 적재적소에 맞는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게 된다.

관용어의 학습은 언어와 문화를 동시에 학습하여 어휘 인식 및 사용에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게 한다. 관용어는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제 3의 의미를 지니고 그것이 화석화 되어 쓰이는 것으로 그 나라의 생활과 역사 민속 사회상들을 담고 있어 한국어 교육에 최적의 도구로 보여 진다.

특별히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을 교수의 대상으로 연구하여 한국과 중국의 관용어 개념을 비교하여 유사점과 다른 점들을 살펴보아 중국인 학습자에게 더 쉽게 교수할 수 있는 방안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먼저 1장에서는 연구목적을 밝히고 연구방법 및 대상,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선행연구에서는 어휘와 통합 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2장에서는 한·중 관용어의 개념과 특성을 살펴보았는데 공통적인 개념으로 관용어는 두 단어 이상이 합하여 새로운 제 3의 의미가 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구조적으로 한국어와 의미와 형태가 같은 관용어, 의미는 같지만 형태가 다른 관용어, 의미가 다르지만 형태가 같은 관용어가 있어 관용어와 문화를 연계하여 교육할 때 적용하여 제시할 부분임이 확인 되었다.

3장에서는 학습용 관용어 선정을 하였는데 먼저 교육용 관용어 선정을 위해 대표적인 대학기관 통합교재 4개 기관의 중급 이상 한국어 교재를 분석하여 교재에 제시된 관용어 목록을 추출하고 현 관용어 교육실태 분석을 하였다. 둘째로 중국인 학습자 모국어 특성을 고려하여 모국어에서 유사한 관용어가 있는 것을 선정하였다. 셋째로 추출된 관용어 목록을 생활문화, 민속문화, 자연문화, 신체언어문화, 기타언어문화로 분류하였다.

4장에서는 먼저 설문조사를 통해 중국어권 학생들의 관용어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중국 학생들은 한국어와 모어가 동형동의어 관계에 있는 관용어 학습에 높은 인지도와 사용도를 보였고, 관용어 학습이 필요한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지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 전원이 필요하다고 답하였고, 관용어를 통해 어휘와 문화를 같이 학습하는 것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3장에서 다섯가지로 분류한 문화를 기초로 하여 어휘와 문화를 통합하여 교육하기에 적합한 모란 모형을 적용하여 개발한 모형을 기반으로 문화별 교육방안과 그 수업지도안을 제시하여 적합한 한국어 교육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언어 교육의 목적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데 있고 그것은 언어와 문화가 통합된 학습이 문법적 지식과 연계 되었을 때 효과를 발휘한다. 중국인 학습자들을 위해서 한국과 중국의 관용어의 어원 등을 더 연구하여 관용어를 의사소통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참고문헌

<논문 및 학술저서>

강원구(2013), '한국 문화 이해도가 한국어 관용표현 인지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권현지(2017), '관용어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안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p.25-27

김문창(1974), '국어 관용어의 연구', 『국어연구 30』, 국어연구회.

김인한(1983), '국어의 관용어에 대한 고찰 - 그 의미와 표현구조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72-76.

김진해(2003), '관용어의 직설의미와 관용의미의 관계 연구', 한국어의미학, 13, pp. 23-41

김현진(2015) '한국어 교육용 관용 표현 연구' 한국어와 문화 제17집 Vol.17(99-129).

노수련(1936), '언어기구에 대하여-관용어와 어법에 대한 고찰', 조선어학 연구회.

문금현(1996), '관용 표현의 생성과 소멸', 『국어학28』, 국어학회.

문금현(1998),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관용표현 연구', 『이중언어학회지15』, 이중언어학회.

문금현(1999), 『국어의 관용 표현 연구』 태학사, pp. 27-28.

박영순(1985), ' 관용어에 대하여', 『국어교육53』, 한국국어교육연구회, pp. 105-121.

신혜인(2010),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용표현 및 교육 방안 연구' 한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p. 18-25.

심재기(1986), '한국어의 관용표현에 대한 화용론적 연구', 『관악어문연구』 제 11집, 서울대학교 국문과.

안경화(1987), '한국어 숙어의 유형에 대한 분석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王寶霞(2009), '韓·中 慣用語의 意味 對照 硏究 -'體言+用言'형 慣用語를 對象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왕춘위(2013), '관용어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방안 연구'청주대학교 석사학원 논문, pp. 4-6, 16-18.

유덕자(1997),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유경화(2011), '한국어 관용표현 분석과 목록 선정 연구', 배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동규(2005), '중·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문화어휘 교육',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미숙(2017), '중국어 특성을 고려한 한국어 관용어 지도 방안 연구' 충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p. 113-121

이재춘(2010), '관용구를 활용한 한국어 문화 교육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p. 34-37, 68-88.

李傳燕(2005), '透明度對中高級水平韓國學習者理解漢語慣用語的影響',北京語言大學 碩士學位論文.

정은미(2013), '한국어 관용어의 이해도 분석과 교육 방안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p. 102-116

조 뢰(2011),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용어 교육 방안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p. 15-30.

조항록(2004a), '한국어 문화교육론의 내용 구성 시론(試論)', 『한국언어문화학 1-1』,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지경숙(1999), '국어 관용어의 의미론적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축취영(2015), '한국어 관용어 교육 연구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와 문화 』 제17집, pp. 277-280.

황정아(2008), '한중 관용어의 표현 양상과 내포 문화 비교', 상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황정혜(2010), '한·중 관용표현을 통한 한국 문화 교육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p. 53-57.

후문옥(2003),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어휘 교육', 연세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pp. 37-47.

<인터넷 사이트>

https:ko.wikipedia.org

http:www.topik.go.kr,

<단행본 및 사전>

강위규(1998), 『국어 관용표현 연구』 , 세종출판사

김정화, 최은규(2002), 『한국어 속담 100, 관용어 100』 국제교육진흥원

국립국어연구원(2000), 『표준국어대사전』 , 두산동아.

『국어국문학자료사전』(1998), 한국사전연구사

『디지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011), 동방미디어

박영준, 최경봉(1996), 『관용어 사전』, 태학사

이희승(2015),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王德春(1996),『新慣用語詞典』, 上海辭书出版社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陈光磊(1991), 『中国惯用语』, 语言文字工作委员会.

胡裕树(1995), 『現代漢語』 , 上海教育出版社.

<한국어 교재>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15), '서울대 한국어 3A ~ 6B', 투판즈.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2012), 'new서강한국어 3A ~ 6말하기', 서강대학교 국제문화교육원.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2013), '연세대 한국어 3-1 ~ 6-2', 연세대학교 출판부.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2008), '말이트이는 한국어 Ⅲ-Ⅴ',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BSTRACT

A Study on Teaching Methods of Korean Idiom for Chinese Students Using the Cultural Background

Kim Ae-sim
Prof. Jang Gyeong-hyeon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learning language is to communicate using that language. To improve communication skills, the systematical instruction of grammar and the ability of grammar usage is important. But even if you have a perfect grammatical knowledge, you cannot speak fluently without the understanding of cultural background of that language. The goals of this research, based on the previous research and survey, is to teach Korean language effectively to the foreigner who wants to learn Korean, especially Chinese, by teaching vocabulary through the idioms both of grammatical factors and social culture of Korea getting out of the way of grammar-oriented education. To educate the Korean language by using idioms, we decided the following selection criteria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of idioms. First, we selected idioms from the pre-existing Korean textbooks. For this purpose, we analyzed the method of teaching idioms by selecting the intermediate level idioms or higher which used in the present university textbooks. Second,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chinese student's native language, we selected similar idioms compare to their language. Third, we classified the idioms which used in the university textbooks by the five kinds of cultural factors based on previous research materials and presented idioms in comparison with Chinese vocabulary.

This study proposes the Moran-model in the way of teaching integrally the vocabulary and culture by using idioms, this is a suitable model for teaching integrally the vocabularies and cultures. As a specific educational method, we proposed the cultural elements teaching model and the model through the learning plan based on the prototype Moran-model, and took measures of teaching Korean language to learn more effectively vocabulary and culture by using idioms.

Through this method, students will not only understand Korean but also the overall culture and society which may lead to higher academic motivation.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부록>

◉ 한국어 학습자의 관용어 설문 조사 ◉

안녕하세요? 이 설문조사는 <한국어 관용어>에 대한 중국 학생 여러분의 생각을 알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질문에 대답을 쓰거나 번호에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여자 ② 남자

2. 현재 한국어 수준은 어느 정도 입니까? 초급 중급 고급으로 쓰세요.

(　　)

3. 한국어 관용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3번에서 ①번을 선택한 학생은 다음 질문에 대답하세요.

3-1 관용어를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① 한국어 교재 ② 한국인 친구와 대화 ③ TV 드라마등 ④ 기타

4. 한국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어느 정도 이해 할 수 있습니까?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① 모두 이해한다 ② 75% 이해한다 ③ 50% 이해한다

④ 25% 이해한다 ⑤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5. 이야기할 때 관용어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5번에서 ①번을 선택한 학생은 다음 질문에 대답하세요.

5-1 이야기할 때 관용어를 어느 정도 사용합니까?

① 자주 사용한다 ② 가끔 사용한다 ③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5-2 대화할 때 왜 관용어를 사용합니까?

① 관용어를 사용하면 한국어를 잘 하는 것 같아서

② 관용어가 재미있어서

③ 관용어를 사용하면 의미를 쉽게 전달할 수 있어서

④ 기타( )

★ 5번에서 ②번을 선택한 학생은 다음 질문에 대답하세요

5-3 대화할 때 왜 관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① 같은 의미가 있는 관용어가 중국어에 없어 어휘를 익히기가 어려워서
② 어휘를 알아도 문화적인 이해가 없어서 어렵다
③ 말하기 연습을 충분히 하지 못해서 뜻은 이해해도 말하기가 어렵다
④ 기타( )

6. 한국어 관용어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매우 필요하다 ② 조금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④ 필요하지 않다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 6번에서 ①,②,③을 선택한 학생을 다음 질문에 대답하세요.

6-1 한국어 관용어 학습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관용어를 통해 한국어 문화 및 역사를 알 수 있다

② 관용어를 통해 고급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

③ 다양한 관용어를 학습하면 한국어를 더 많이 알 수 있다.

④ 관용어가 재미있고, 흥미롭다

7. 한국어 관용어 학습시 한국문화와 관련 있는 관용어를 골라 어휘와 문화를 같이 공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 어휘와 문화를 같이 학습하면 이해를 잘 하고 기억에도 오래 남아 매우 도움이 될것이다

② 둘다 공부하는 것은 더 복잡하여 도움이 안될것이다

③ 기타( )

*다음은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관용어>중 일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표현에는 0표를 모르는 표현에는 X표, 사용해 본 경험 있으면 0표, 사용 경험 없으면 X표를 해주세요.

번호	관용어	표시	사용여부	번호	관용어	표시	사용여부
1	발등에 불이 떨어지다			21	눈(이) 높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발이 넓다			22	바가지를 쓰다		
3	배꼽을 쥐다(잡다)			23	국수를 먹다		
4	손을 놓다			24	그림의 떡		
5	입이 짧다			25	미역국을 먹다		
6	제 눈에 안경			26	바가지를 긁다		
7	깨가 쏟아지다			27	시치미를 떼다		
8	발 벗고 나서다			28	비행기를 태우다		
9	손발(이) 맞다			29	산통이 깨지다		
10	손이 크다			30	김칫국을 마시다		
11	입이 가볍다			31	함흥차사		
12	눈을 똑바로 뜨다			32	엎질러진 물		
13	낯이 설다			33	내 코가 석자		
14	손을 씻다			34	허리띠를 졸라 매다		
15	눈이 빠지게 기다리다			35	쥐도 새도 모르게		
16	간이 붓다			36	파김치가 되다		
17	숟가락을 놓다			37	제 눈에 안경		
18	간담이 서늘하다			38	강 건너 불구경		
19	죽도 밥도 안되다			39	찬물을 끼얹다		
20	식은 죽 먹듯			40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Collection @ chosun